군산장례(전문)예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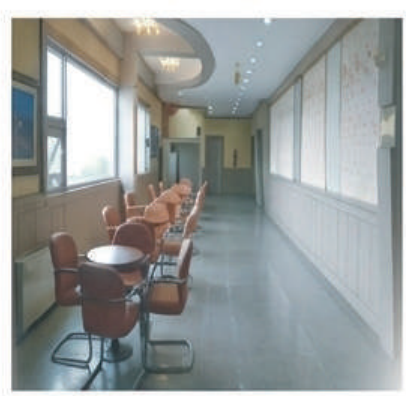




예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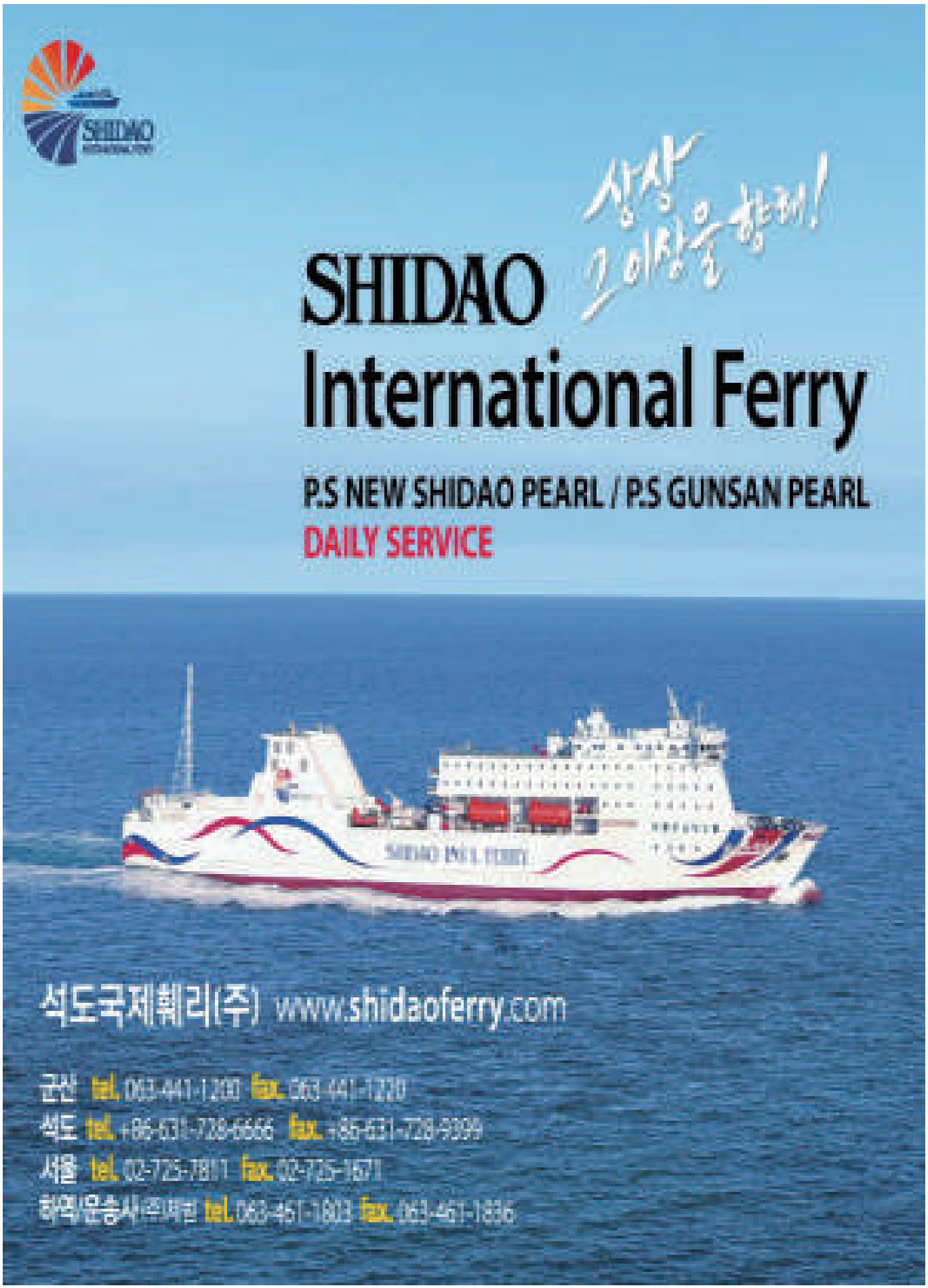
사우나실



2층로비

거품없는 장례비용으로 예(禮)와 정성(情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T. 468-4119, 4444


SHIDAO
상상 그 이상을 향해!
SHIDAO
International Ferry
P.S NEW SHIDAO PEARL / P.S GUNSAN PEARL
DAILY SERVICE
석도국제훼리(주) www.shidaoferry.com
군산 tel. 063-441-1200 fax. 063-441-1220
석도 tel. +86-631-728-6666 fax. +86-631-728-9399
서울 tel. 02-725-7811 fax. 02-725-1671
하역/운송사 전북본부 tel. 063-461-1803 fax. 063-461-1806

MAGAZINE GUNSAN SAEMANGEUM WRITING STAFF

매거진군산 새만금 편집위원



박승일
회장
newgunsanews@naver.com



김민재
운영위원장
newgunsanews@naver.com



채명룡
발행인
ml7614@naver.com



강권모
부사장
sky6113483@hanmail.net



이좋은 편집위원
leejony_@daum.net



최승호
취재부장
gsport11@naver.com



박세원 편집위원
작가
hamp38@hanmail.net



신성호 편집위원
지필문학/대한문학 편집,발행인
군산예총 부회장
shinez2580@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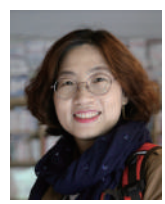
오성렬 편집위원
칼럼니스트
poi3275@naver.com



이영미 편집위원
프리모아트컬렉션,
(사)이음예술문화원,
군산도시활성화연구소 대표
ycm1022@hanmail.net



배수정 편집위원
서양화 작가
국립군산대 서양화 강의
jlmjlm710@naver.com



신솔원 편집위원
시인(전북작가회의)
한국동시문학회 회원
speedal@hanmail.net



김선순 편집위원
시인
군산대학교 졸업
시치료·독서치료전문가



공종구 편집위원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kong@kunsan.ac.kr



정미란 편집위원
서강SLP 군산 영어학원장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임강사
수필집『Essay in May』
jmr6114@hanmail.net



김철호 편집위원
계곡가든 꽃게장 대표
대한민국 명인·세계 명인
식품의약학 박사
(조선대 대학원)
www.crabland.com

Vol.178| 2026.가을호 특집

magazine gunsan

회 장 박 승 일 newgunsanews@naver.com
운 영 위 원 장 김 민 재 newgunsanews@naver.com
발 행 인 채 명 룡 ml7614@naver.com
부 사 장 강 권 모 sky6113483@hanmail.net
편 집 부 장 이 좋 은 leejony_@daum.net
취 재 부 장 최 승 호 gsport11@naver.com
편 집 위 원 박 세 원 hamp38@hanmail.net
편 집 위 원 신 성 호 shinez2580@hanmail.net
편 집 위 원 오 성 렬 poi3275@naver.com
편 집 위 원 이 영 미 ycm1022@hanmail.net
편 집 위 원 정 미 란 jmr6114@hanmail.net
칼 럼 니 스 트 배 수 정 jlmjlm710@naver.com
칼 럼 니 스 트 신 솔 원 speedal@hanmail.net
칼 럼 니 스 트 공 종 구 kong@kunsan.ac.kr
칼 럼 니 스 트 김 선 순 3585711@naver.com
칼 럼 니 스 트 김 철 호 www.crabland com
자 문 위 원 이 진 우 jay0810@hanmail.net

만연숯불갈비 미장점



Menu

구 이 류

(2인 이상 주문가능)



수제양념돼지갈비



1인 250g / 100g당 6,400원 **16,000**

LA양념갈비



1인 200g / 100g당 9,000원 **18,000**

한돈 삼겹살



1인 180g / 100g당 8,889원 **16,000**

Menu

겉들임류

한우 육회1** 1*



한접시 200g / 100g당 14,000원 **28,000**

반접시 120g / 100g당 15,000원 **18,000**

화산계란찜 **5,000**

Menu

식 사 류

갈비탕 **15,000**

한우 육회비빔밥 **13,000**

(pm14:30까지 주문가능)

한우 육개장 **13,000**

물 냉 면 **8,000**

비빔냉면 **8,000**



Menu

고기드신후 식사

후식 물냉면 **5,000**

후식 비빔냉면..... **5,000**

누룽지..... **3,000**

된장찌개..... **3,000**

공기밥..... **1,000**

주 류

소주 **4,000**

맥주 **4,000**

막걸리..... **3,000**

청하..... **5,000**

복분자..... **10,000**

음료수..... **2,000**

문화관광재단 대표 청문, 잇단 낙마 차라리 지역 인사를 발굴하자

지역의 문화와 시민들의 정서를 아우르는 일, 거기에 덧붙여 항구도시이자 근대역사가 숨 쉬는 지역 특성을 관광과 접목하는 게 바로 문화관광재단의 역할이라고 본다.

전국의 지자체마다 이와 관련한 인물 뽑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소식이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이 출범 3년 차를 맞았으나 대표에 대한 잇단 청문 낙마로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25년 1차 인사청문에 오른 A씨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후한 점수를 받고 관광 분야에서는 부족했으나 조건부 적격을 받았다.

"전 근무 지의 '불미스러운 일'이 사실로 확인되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다"는 조건이었고 결국 A씨는 사퇴했다.
두 번째 청문은 지난 9월 이틀 동안 진행됐는데, 한국관광공사 1급 출신 B씨가 최종 후보자로 올랐다.

시의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윤신애)는 B씨에 대해 관광 경력과 전문성은 인정했으나 지역문화 이해 부족 등 A씨와 정반대되는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냈다.

특위는 이례적으로 "향후 후보자 추천·검증 과정에서 전문성뿐 아니라 지역 이해도와 조직경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라"고 군산시에 요구했다.
최종 임용 여부는 시장의 손에 달려 있으나 잇따른 후보자 낙마로 군산시는 난감한 표정이다.

한편으로 공모에 응모한 훌륭한 분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관문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로 볼 때 준비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문화 이해 부족', '사업 구상 부족', '경영철학 미흡', '성과 전략 비구체적' 등 부적격 사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적절한 인물을 걸러내는 데 군산시의 내부 문제가 없었는지 또한 살펴볼 일이다.

또한 지난 1·2차 청문회에서 정반대되는 지적이 나온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문화전문가를 추천했더니 관광 전문성이 부족했다', '관광전문가를 추천했더니 지역문화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상반된 내용이 그렇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소리도 들린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화려한 경력의 외부 인사를 섭외할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하더라도 군산지역 인사 중에서 발탁하면 어떨까.
대표 한 사람이 능력을 발휘해서 거대한 사업을 따온다고 해서 지역의 문화와 관광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다.
그것보다 요즘은 소소한 일상에서 의미를 찾는 쪽으로 관광의 형태가 바뀌는 추세다.

'소소한 것의 행복'을 어떻게 느끼게 만들고, 군산만의 독특한 향기와 색깔이 나오도록 할 것인가.
그게 문화이고, 또한 관광의 얼굴이다. 이 문제는 군산 사람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지역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쉽기만 하랴만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글 | 박승일
본지 회장
newgunsanews@naver.com

뿌리 깊은 나무, '이성당'
선행과 기부로 더불어 살아 온 김현주 대표

글 I 채명룡 (본지 발행인)
ml7614@naver.com

이성당은 뿌리 깊은 나무를 닮았다.
여름 햇볕을 가려주고 겨울 북풍을 막아주던 선산 소나무처럼 말이다.
이성당의 진가는 기부와 선행이다.
더불어 산다는 의미는 보이지 않게 그러나 사람들 가슴에 시나브로 스며들었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이라는 역사의 토대를 만들었고,
기부와 선행으로 함께 살아가는 기업 이미지를 만들어갔다.
이성당은 이제 '빵집'을 넘어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으로 진화하는 중이다.





줄지어 선 관광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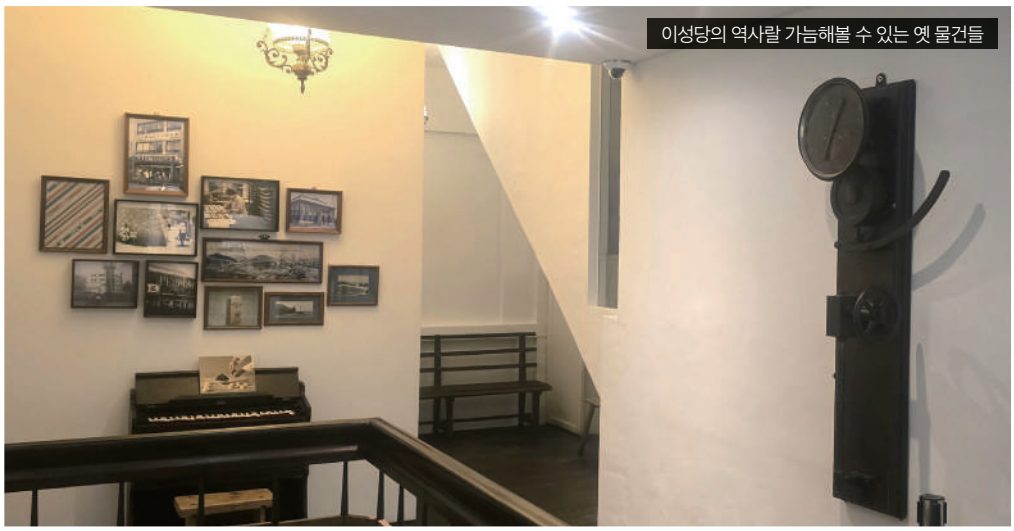
밤에도 방문객들은 끊기질 않아요


이성당 '신관'에 놓여진 풍금

한국인이 가고 싶은 명소, '이성당'

군산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이성당이 최근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오래된 빵집' 이미지에서 '한국인이 가고 싶은 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8월 19일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 국민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 4만 145명이 참여해 무려 153만 8,035표를 행사한 결과치이다.
전북에서는 모두 515건의 명소가 선정됐는데, 전주 한옥마을도 남원 광한루원도 아닌 군산의 '이성당'이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전북 515건 중 최다 득표 → 전국 공동 5위 → 4개 주제 동시 상위권'에 오르면서, 군산의 미식 관광 가능성과 함께 이성당의 저력을 확인해 주었다.



이성당의 역사랄 가늠해볼 수 있는 옛 물건들



이성당의 옛 모습

이성당의 뿌리는 '선행'

김현주 대표가 이성당을 맡은 건 지난 2003년이다.
그 이전 결혼하면서부터 시어머니 오남례 여사와 함께 가게 문을 열고 닫았으니, 그 시간은 무려 40여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김현주 대표는 '문화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다.
지난 2011년 이성당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섰다. 『빵의 백년사-군산의 이즈모야-/함한희, 오세미나』를 만들어 내는 동기를 제공했다.
그 결과 이성당은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이라는 역사적 토대를 만들었다.
오랜 역사도 물론이지만, 이성당의 뿌리는 '선행'이다.
시어머니 고 오남례 여사의 종교를 통한 선행은 늘 군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군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어왔음은 말할 것도 없다.
어려운 곳을 어루만지는 일은 오늘의 김현주 대표에게로 자연스레 이어졌다.
오늘도 이성당 앞 북적이는 귀퉁이 한쪽은 노점상들 차지이다.
어려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모습이 이질적이지 않다.
오늘날 김현주 대표의 선행과 진정성은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성실과 신뢰가 뿌리였으며, 그 바탕이 있기에 한국인이 가고 싶은 명소로 선택된 게 아닐까.
"빵을 사러 오는 외지 관광객들 사이에서 푸성귀를 갖고 나왔거나, 옥수수를 쪄서 팔려고 나온 노점 할머니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건 보기 어려운 광경이죠."
한 관광객은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는 데 놀라는 표정이었다.

‘보이는 듯, 보이지 않게’

이성당의 나눔은 “새로 만든 빵을 나누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팔고 남은 빵을 후원하는 게 아니다.
고인이 된 3대 사업주 오남례 여사에서 4대 사업주 김현주 대표에 이르기까지 선행은 대부분 ‘보이는 듯, 보이지 않게’였다.
지난 1999년부터 군산의 가정개발센터 아이들에게 생일 케이크를 후원하면서 선행과 기부를 더욱 확장했다.
월드비전을 통하여 지난 2013년부터 1억 원을 훨씬 넘는 기부금을 지원하였는데,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한 식수와 교육 사업이 대표적이다. 요즈음에는 국내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로 눈을 돌리고 있다.
김 대표는 ‘밥피어스아너클럽’ 회원이다.
월드비전 창립자 이름을 딴 고액 후원자 모임으로 누적 후원금 1억 원 이상인 후원자 중에서 다양한 지구촌 문제에 공감하고,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 온 후원자를 위촉하고 있다.
이성당은 지난 2021년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장학금 1,000만원을, 그 이듬해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군산시에 1억 원을 기탁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누적 기부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기부자를 뜻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 명문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2015년의 방글라데시 보그라 식수 지원 사업도 지원하고, 2023년 이성당 가족들과 함께 에디오피아 아동 20명을 후원하고 있다.
오늘도 보이지 않게 어려운 곳에 빵을 보내고, 기관·단체의 후원 요청에 응답하면서 보이지 않게, 도드라지지 않게 선행을 펼치고 있다.
이런 기부와 선행이라는 바탕이 있기에 이성당의 진가가 돋보이는 것이리라.


오래된 본관 식탁에도 손님이 가득

매장 안에도 줄이 길게 늘어섰고요



번잡한 문 앞이지만 없는 사람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배려


김현주 대표


유럽풍 신관의 앞 모습

국민이 선택한 전북의 명소 '이성당'

이성당이 국민이 선택한 '단일 주제 최다 득표 명소'에 선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8월 19일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 국민투표 결과, 이성당이 '전북 515건 중 최다 득표 → 전국 공동 5위 → 4개 주제 동시 상위권'으로 군산의 미식관광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전국적으로도 대단한 성적을 냈다.
100개 단일 주제별로 선정된 전국 명소들의 득표 결과에서 이성당은 서울 국립고궁박물관과 함께 공동 5위를 기록했다.
서해 남부권의 중소도시 군산시의 이성당 약진은 눈여겨 볼 지점이다.
'전국 방방곡곡 빵지 순례' 분야에서는 전국 유명세의 대전 성심당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성당의 경쟁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숨은 노포'에서도 전국 2위, '밀가루 로드'에서는 3위, '할매니얼의 K-디저트 탐방'에서는 8위를 기록했다.
무려 4개의 서로 다른 여행 주제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먹거리가 여행객을 움직이고, 그 먹거리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여행의 목적이 되는 최근의 관광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성당의 저력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정부는 정책브리핑 닷새가 지난 8월 24일 군산을 직접 찾아 '100×100, 국민이 골랐다. 군산에서 먹고 걷고 찍으며 즐긴 하루'라는 별도의 여행기까지 게재했다.

경암동 철길마을을 시작으로 탱탱만두와 한일옥을 거쳐 초원사진관, 신흥동 일본식 가옥, 이성당, 미즈 커피까지 연결하는 여행 동선도 만들었다.

하루 동안 '먹고-걷고-보고-찍는' 군산 관광 코스인데, 이성당을 중심에 둔 미식 여행에 다름 아니었다.

그동안 군산 관광은 원도심 근대역사문화와 고군산군도라는 두 개의 큰 축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이번 국민투표 결과를 들여다보면 '음식'이 군산 관광의 또 다른 축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성당을 중심으로 한 빵과 한일옥의 국밥, 복성루와 짬뽕특화거리, 계곡가든의 꽃게장, 안젤라 분식과 탱탱 만두까지 군산의 오래된 음식문화가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성당을 단순히 '빵집'이 아니라 군산 관광의 중심점으로 인식한 건 매우 의미가 있다.

관광객들이 군산에 와서 무엇을 보고 싶은지를 정부 혹은 행정기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신관 1층의 모습


이성당 신관 2층의 밤


대량 주문은 신관 1층에서 해주세요


단팥빵 한 볼테기 먹어볼까


단팥빵, 야채빵만 맛난 게 아니거든요



이성당의 멋, 이성당의 맛 '모닝셋트'



주문은 끊지질 않네요

국민과 함께 성장해 가는 '이성당'

'근대역사문화도시 군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먹고 걷고 머무는 군산'으로 관광의 외연을 넓힐 때가 됐다.
군산이 가야 할 관광 정책의 중심에 나눔과 기부로 뿌리를 내린 이 성당이 자리 잡은 건 매우 다행스럽다.

이성당이 군산 사람들과 함께, 전 국민과 함께 더욱 성장해 나가길 빈다.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177(중앙로1가)
이메일 : leesungdang 1945@daum.net.
전화번호 : 063-445-2772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인간문화재 이영희 선생님.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와 병창의 보유자

글 | 정미란
jmr6114@hanmail.net



대한민국 국악제전에서 우연히 만난 이영희 선생님이 군산여고 동문이었다.
깜짝 반가워하며 알게 된 여고 후배의 소개로 대선배인
이영희 선생님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의 한적한 동네였다.
자그마한 텃밭이 있는 주택에서 만난 선생님은 하얀 머리에 가녀린 듯 편안한 모습이었다.
처음 보는 후배를 향한 함박웃음이 너무나 환하셔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같았다.
여든을 훌쩍 넘긴 나이가 믿기지 않게
말씀도, 걸음걸이도,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도 맑고 건강했다.



군산여고 교정을 찾는 선생님


명인과 군산여고 후배들의 만남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찾은 인간문화재 이영희 선생님과 여고 선후배들

60여년 전, 생생했던 군산의 모습 기억

무엇보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오래전 기억을 꺼내는 순간마다 소녀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은 영락 여고 시절 소녀 같았다.

처음 만난 여고 후배와 함께 고향 군산과 모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여고 시절의 기억부터 가족 이야기, 평생 국악의 길에서 만났던 사람들까지 선생님의 기억 속 시간들이 하나둘 펼쳐졌다.

"경찰서가 있는 그 길에 영동이 있었어"

선생님은 60여 년 전 군산 영동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 집 옆에 천양각, 한양사가 있었지. 공주여관, 일구여관이 유명했는데 그 집 딸들이 무용 배우는 걸 보고 엄마한테 말했지. 왜 난 무용 배우면 안 되냐고."

그렇게 무용에 대한 갈망이 시작되었다.

구시장에서 장삼을 빌려 무용을 배우러 다니던 여고 시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래전 군산의 거리와 사람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인력거를 타기도

인연, 그리고 기억

1930년대 군산에서 경성고무를 운영했던 이만수 사장이 부친의 사촌이었다는 이야기, 그 인연으로 어머니가 만월표 고무신 가게를 운영했던 이야기,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4남매를 키워낸 어머니 이야기까지. 선생님의 기억 속 군산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다.

사람과 집과 가게, 그리고 어린 시절의 꿈이 켜켜이 쌓여 있는 삶의 모습이었다.

전쟁 속에서 헤어진 친구를 대학에서 다시 만나셨다고 하셨다.

어린 시절 전쟁통에 부산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 이혜선 씨 이야기를 할 때면 선생님의 얼굴에는 다시 여고생 같은 웃음이 번졌다.

서울이 수복되면서 서로 연락이 끊겼던 두 사람은 이화여대에서 운명처럼 다시 만났다.

그리고 훗날 국무총리 후보가 되었던 장상 교수와 함께 세 사람은 대학 시절 늘 붙어 다니던 친구가 되었다며 웃으셨다.

대학 4학년 때 중앙방송국, 지금의 KBS가 주최한 국악 콩쿠르에서 수상한 선생님은 심사위원의 추천으로 국악예술학교 교사가 되었다.

국악예술학교에서 함께했던 예인들의 이름을 하나씩 꺼내놓는 선생님의 기억은 바로 엊그제 일처럼 생생했다.

박녹주, 박초월, 김소희 같은 명창들과 거문고의 김영재 명인. 당대 최고의 예인들과 한 시대를 함께 살아온 선생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크게 내세우지 않았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좋은 선배들과 함께했기 때문이야."

명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보다 앞서있던 선배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얼굴에 감사함이 가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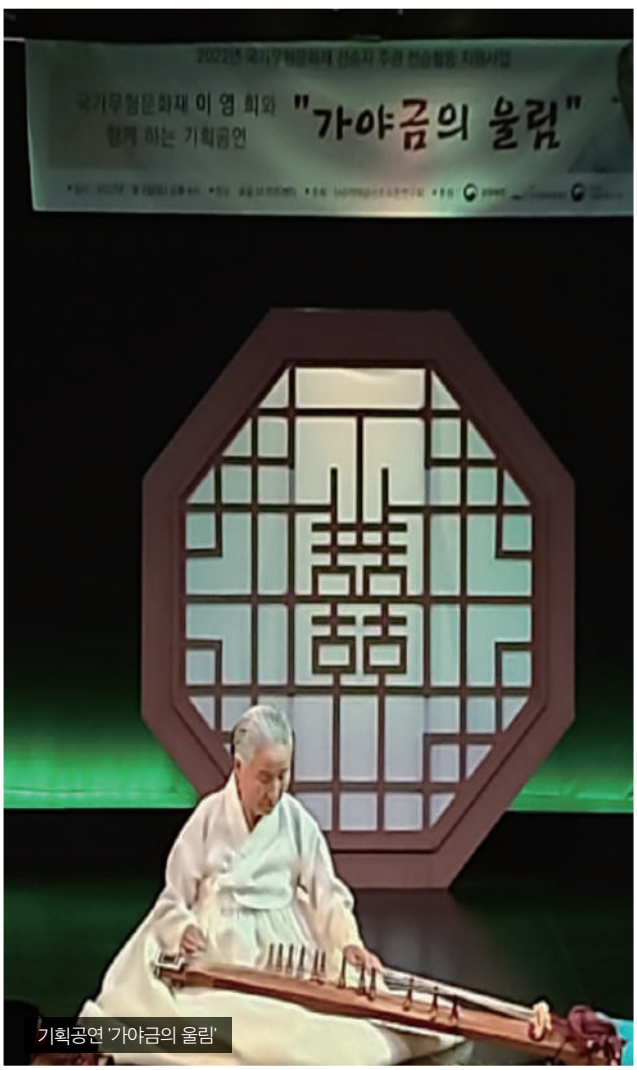

이영희 선생님과 여고 동문들


이영희 선생님과 필자 정미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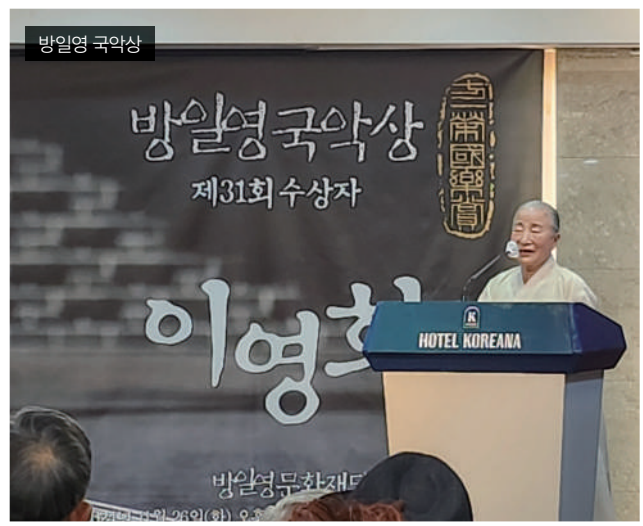
세월은 흘렀어도 가야금 앞은 현재진행형

지금도 일요일마다 후배들을 가르치신다는 가야금 명인의 열정이 널찍한 거실 한편에 세워놓은 수십 개의 가야금들에서 진하게 느껴졌다.
요즈음은 딸 같은 후배들, 함께 활동했던 국악인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 보낸다며 행복한 웃음을 지으셨다.
세월은 흘렀지만 가야금 앞에 앉는 일만큼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다.
국악을 공부하려는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으냐는 질문에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젊은이들에게 힘든 예인의 길을 권하고 싶지는 않아."

평생 예술가로 살아온 명인이 후배들에게 예술가의 길을 권하지 않는다는 말에는 오랜 세월 직접 겪은 현실이 담겨 있었다.
재능이 있어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술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 그래서 선생님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능 있는 예인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예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무형문화재 전승교육관 건립을 위해 50억 원 상당의 개인 토지 1,700평을 문화재청에 기부했다.
전수관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분명했다. 직업적인 민간 예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재인청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표정이 단호했다.



기획공연 '가야금의 울림'



방일영 국악상



화관 문화훈장



김대중 전 대통령과



자랑스런 이화인상 수상

"고향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평생 독신으로 살아오며 모은 재산을 자신을 위해 남겨두기보다, 재능 있는 후배 예인들을 위해 쓰겠다는 88살 예인의 삶은 그래서 태산처럼 크게 다가왔다.

고향을 떠난 지 수십 년. 바쁜 국악 활동 때문에 정작 고향에는 제대로 와보지 못했다는 선생님은 군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쉬움과 그리움을 함께 드러냈다.

"고향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

일정을 정해 모시겠다고 하자 선생님은 반갑게 웃었다.

그리고 드디어 고향 군산에서 우리 후배들은 선생님을 만났다. 필자와 함께 유귀옥 군산여고 증경회장, 최경희 동문, 그리고 선생님의 문하생들이 함께했다.

군산의 골목골목을 보시며 진작 오지 못한 지난 시절이 아쉽다고 여러 번 말씀하는 모습에서 소녀와 백발의 선생님 모습이 교차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달라진 군산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영동을 돌아보며 회한에 젖었고 근대역사박물관에서는 어릴적 인력거를 탔던 경험이 엊그제 같다며 활짝 웃으셨다.

생전에 어머니가 운영하셨던 박물관의 '만월표 신발가게'를 발견하자 깜짝 반가워하시며 진열된 고무신을 어루만지며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지셨다.

고향의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당신 사진을 찍는 후배들을 말리면서도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표정의 선생님은 영락 소녀였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이영희 선생님

아직 끝나지 않은 삶의 연주

모든 사람이 뛰어난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한평생 갈고닦아 세상에 내놓는 일 또한 결코 쉽지 않다.
더 어려운 것은 그렇게 얻은 명성과 재산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일이다.
이영희 선생님은 평생 예술을 위해 살았다. 그리고 이제 그 삶의 결실을 또 다른 예인들을 위해 쾌척하셨다.
자신이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돌려주는 마음. 어쩌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전승은 가야금의 선율만을 이어가는 일이 아닐 것이다.
한 사람이 평생 지켜온 예술에 대한 마음과 후배를 향한 책임까지 건네려는 깊은 뜻도 함께라고 생각되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선생님께 인사하며 말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이상 안 늙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셨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걱정 마! 나는 백 살까지 살 거야~^^"
마음속에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남아 있다면 선생님의 그 말은 약속이 아닌 '아직 끝나지 않은 삶의 연주가 아닐까' 생각했다.

서해 랜드마크 'K-관광섬, 인도교'의 숨은 이야기
토목 6급 오근엽과 직원들, 땀과 눈물로 헌신

글 I 채명룡
ml7614@naver.com


K-관광섬의 아름다운 모습

"바다가 허락해야만 갈 수 있는 섬, 준비되지 않으면 돌아볼 수 없는 섬, 한번 보면 평생 잊히지 않는 섬이 바로 이곳이죠."
2026년 2월, 모두 340억여원이 투입된 고군산 말도~보농도~명도~광대도~방축도를 잇는 4개의 인도교가 완공 단계에 들어섰다.
같은 해 7월 27일에는 2023년 선정돼 11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고군산 섬잇길이 완공됐다.
'4개 인도교와 섬잇길'이 마무리되면서 'K-관광섬 트레킹 사업'이 완성됐으며, 지난 8월 8일 임시 개통 이후 1개월 정도가 지났다.
방문객이 넘쳐나고 있으며, 7.2㎞에 달하는 섬과 섬 사이의 다리와 트레킹 코스의 절경에 감탄하고 있다.
이 사업 완공의 이면에는 현장을 베개 삼고, 시공사들과 한 이불을 덮을 정도로 함께해 온 공직자들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
오늘의 서해안 최고의 경치를 만들어내기까지 시공사의 고생도 컸다.
더불어 군산시청 섬개발계 토목 6급 오근엽 계장과 윤용묵 주무관의 헌신도 그에 못지 않았다.



현장을 발로 뛰면서어려운 공사를 해결하기도



시공사와 함께 걸으면서 현장의 상황 점검

틈만 나면 섬 공사 현장으로 달려가다

서해안의 비경을 간직한 5개 섬을 연결하는 다리와 트레킹 코스는 별도 사업이다. 그러나 착공에서부터 전 구간 연결까지 약 8년, 최초 공모부터 따지면 약 11년이 걸린 셈이다.
물때에 맞춰 공사를 해야 하는 난공사라서 숱한 어려움이 닥쳐왔다.
바람과 조류 등 어려운 자연 여건 때문에 공사 기간이 길어졌다. 민원도 많았고, 법적인 분쟁도 있었다. 어려운 공사 여건에 비추어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니었다.

"시공사와 군산시, 감리단 등 모두 먼바다에서 형태가 다른 4개의 교량을 만들어 본 경험이 부족했어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게 중요했죠."
시공사는 물론 담당 공무원과 감리단 또한 오직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틈만 나면 섬 공사 현장으로 달려가 공사를 마무리하려는 공직자들의 헌신은 공사 품질 면에서도 매우 중요했다.
그들의 땀과 눈물이 없었다면 오늘날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었을까.



틈만 나면 섬 공사 현장으로 달려가다

서해안의 비경을 간직한 5개 섬을 연결하는 다리와 트레킹 코스는 별도 사업이다. 그러나 착공에서부터 전 구간 연결까지 약 8년, 최초 공모부터 따지면 약 11년이 걸린 셈이다.
물때에 맞춰 공사를 해야 하는 난공사라서 숱한 어려움이 닥쳐왔다.
바람과 조류 등 어려운 자연 여건 때문에 공사 기간이 길어졌다. 민원도 많았고, 법적인 분쟁도 있었다. 어려운 공사 여건에 비추어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니었다.

"시공사와 군산시, 감리단 등 모두 먼바다에서 형태가 다른 4개의 교량을 만들어 본 경험이 부족했어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게 중요했죠."
시공사는 물론 담당 공무원과 감리단 또한 오직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틈만 나면 섬 공사 현장으로 달려가 공사를 마무리하려는 공직자들의 헌신은 공사 품질 면에서도 매우 중요했다.
그들의 땀과 눈물이 없었다면 오늘날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었을까.



독립문 바위의 웅장한 모습

틈만 나면 섬 공사 현장으로 달려가다

서해안의 비경을 간직한 5개 섬을 연결하는 다리와 트레킹 코스는 별도 사업이다. 그러나 착공에서부터 전 구간 연결까지 약 8년, 최초 공모부터 따지면 약 11년이 걸린 셈이다.
물때에 맞춰 공사를 해야 하는 난공사라서 숱한 어려움이 닥쳐왔다.
바람과 조류 등 어려운 자연 여건 때문에 공사 기간이 길어졌다. 민원도 많았고, 법적인 분쟁도 있었다. 어려운 공사 여건에 비추어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니었다.

"시공사와 군산시, 감리단 등 모두 먼바다에서 형태가 다른 4개의 교량을 만들어 본 경험이 부족했어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게 중요했죠."
시공사는 물론 담당 공무원과 감리단 또한 오직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틈만 나면 섬 공사 현장으로 달려가 공사를 마무리하려는 공직자들의 헌신은 공사 품질 면에서도 매우 중요했다.
그들의 땀과 눈물이 없었다면 오늘날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었을까.


대장도 현장에서 오근엽 계장과 윤용묵


섬 개발계 오근엽 계장(왼쪽), 윤용묵 직원(오른쪽)

‘구원 투수’로 투입된 오근엽과 윤용묵의 헌신

2023년 봄, 명도~광대도를 연결하는 제3교 현장의 시공 방법에 따른 공사비 문제로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공사가 멈춰 섰다.
고군산 5개 섬을 잇는 인도교 사업을 제안할 때부터 8년을 담당으로 근무하다 약 2년여 동안 안전총괄과와 하수과를 돌던 오근엽이 다시 호출됐다.
말하자면 어렵고 힘든 공사 현장을 책임지고 완공하라는 ‘구원 투수’ 성격의 인사였다.
이 공사에 재투입된 지난 2024년 7월 이후 그는 현장에서 살다시피 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는 실무형 직원으로 소문나 있었던 그의 역량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기존 시공사는 제3교(명도~광대도)의 시·종점부 4개소 기초공사에 ‘파일 항타(아시리)’ 공법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공사비를 추가로 증액하지 않으면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공법은 바지선 위에 크레인을 설치해 강관을 암반에 압입하는 방법이다.
물때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멈춰야 하는 특성 때문에 장비 임대료 등 공사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었다.
“전문가 의견과 기술자문위원회를 거쳐 공사비와 공기 단축 면에서 훨씬 유리한 대체 공법인 ‘직접기초 공법’을 제시하고 시공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죠.”
오 계장과 윤용묵 주무관은 새로운 공법에 반대하는 업체로부터 해당 구간에 대한 포기 동의를 받은 뒤 입찰을 통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일사천리로 공사를 수행했다.

서해 랜드마크의 완성, 공무원의 헌신이 뒷받침

시공사의 반대에도 설계를 변경하고 일부 공사를 다시 발주해 공사를 벌이는 건 말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오 계장은 시공사와 계속 협의하면서 대안을 모색했으며, 이를 밀어붙여 약 7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해 난공사의 적기 완공과 예산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5개의 섬과 섬을 4개소의 인도교로 연결하고, 이를 잇는 총연장 약 7.2㎞에 달하는 트레킹 코스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특히 공사 중단과 재개, 시공사와 군산시의 소송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3교 연결 구간에서는 습곡과 단층으로 유명한 고군산 국가지질공원의 비경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다.
독립문 바위를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찍는 건 트레킹의 백미다.
“아름다운 서해라는 말로는 부족하고, 세상의 푸른빛은 모두 모아 놓은 듯 절경 속의 절경이 바로 K-관광섬을 잇는 길이거든요.”


시공 방법 변경안을 놓고 현장 점검(2025년)


말도~방축도를 잇는 다리


선유3구 방파제의 '기도 등대'


아치형 다리


대장도 현장에서 오근엽 계장과 윤용묵


아름다운 섬 풍경

고군산군도 랜드마크의 숨은 이야기

고군산군도의 5개 섬을 연결하는 K-관광섬 방문을 계획한다면 적어도 4~5시간 동안 섬의 굴곡을 오르내릴 수 있는 체력이 필수적이다.

"서해의 시퍼런 파도와 바람이 만들어내는 절경은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평소 운동으로 체력을 단련하지 않으면 울고 가기 십상이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죠."

적극 행정으로 난공사를 풀어낸 군산시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K-관광섬 트레킹이 완성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 고군산군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우뚝 섰으니, 그들의 이야기도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K-관광섬, 인도교' 탐방 팁

장자도 선착장 (장자도리 47-1) 전화 063-464-4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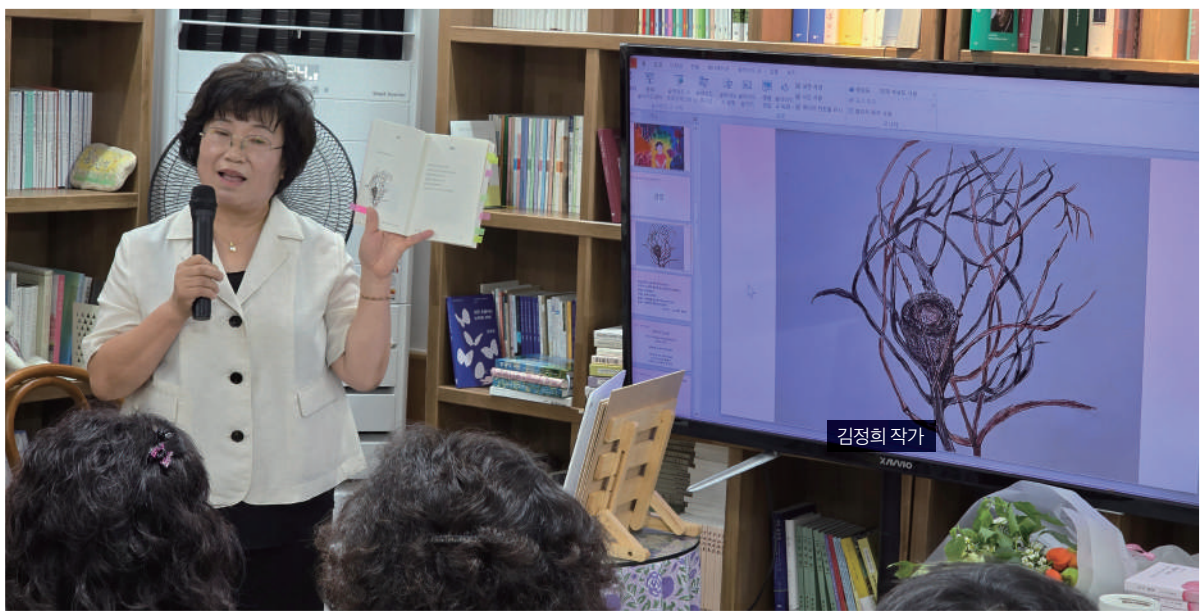
관리도,방축도,명도, 말도 운항 예약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예매] 홈페이지를 이용

고군산 군도 섬 여행 선박 운행 시간표 확인 및 예약 필수

김정희 작가, 네 번째 에세이집《거기, 봄날》출간
군산에서 나고 자란 작가의 깊은 시선… 삶의 고요한 풍경을 담다.

글 I 박세원
hamp38@hanmai..net


김정희 작가

잔잔하게 밀려오는 푸른 바다처럼, 독자들의 마음에 따뜻한 봄날을 선사한 김정희 작가가 있다. 군산에서 나고 자라며 지역의 정서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품어온 김정희 작가의 네 번째 에세이집《거기, 봄날》을 세상에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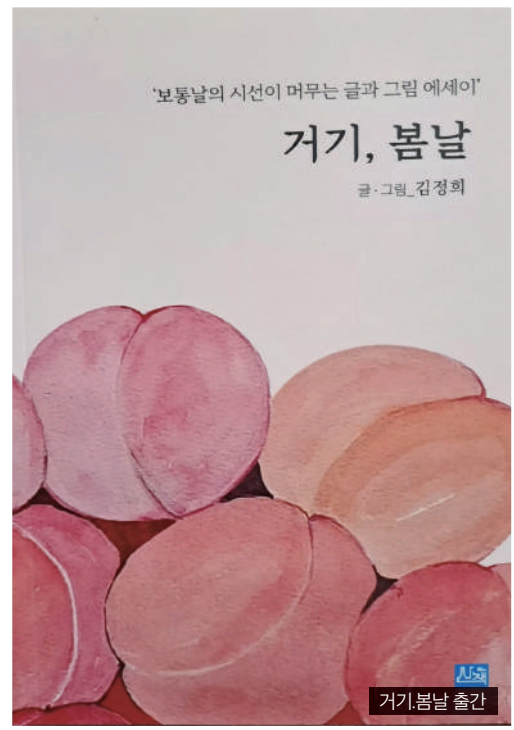
작가의 글은 흔히 '잔잔하고 푸른 바다'에 비유된다. 화려하게 감정을 과장하거나 과한 수사로 포장하기보다는, 조용히 밀려왔다 쓸려가는 군산 앞바다의 파도처럼 담담하고 정갈하게 문장을 쌓아 올린다. 그의 글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속 소란함이 씻겨 내려가고, 마치 고요한 해변을 홀로 거니는 듯한 평온함과 사색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신작《거기, 봄날》은 그녀가 걸어온 삶의 여정과 스쳐 지나간 소소한 순간들, 그리고 군산이라는 공간이 건네는 깊은 정서를 온전히 담아냈다. 자극적인 이야기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작가가 건네는 담백한 문장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대한 함성보다 내면의 묵직한 울림에 집중하게 만든다.

제목에서 느껴지듯 이번 책은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고 있는, 혹은 언젠가 다다르고 싶은 '봄날'의 기억과 희망을 다정하게 어루만진다. 세월의 결이 깊어질수록 더욱 푸르고 짙어지는 그의 시선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기분 좋은 쉼표가 되어준다. 작가는 글 속에 그림을 담아 그려내는 재주를 가졌다. 작가의 그림은 전문 화가처럼 매끄럽지 않아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다. 《거기, 봄날》 표지의 복숭아 그림을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는 표현이 적절하게 맛깔나게 그렸음을 알 수 있다.

무더위가 한 풀 꺾인 날, 월명동 소재 책방 '봄날의 산책'(대표 박모니카)에서 출간 기념 '북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그녀의 잔잔하면서도 거침없는 글 이야기가 책방 안의 공기를 압도하며 궤적을 그린다. 작가는 글쓰기에 대해서 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작가의 북토크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서울에서온열렬 독자와 함께



글!

저는 대체로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학창 시절의 숙제나 살면 서의 숙제를 빼먹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성실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성실함이 곧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지 않았는지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글과 놀았습니다. 놀았다는 표현은 글 쓰는 일에 작정하고 덤비지 않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즐기는 사람이기지 못한다고 하던데요, 생각해 보면 글 쓰는 일을 무척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쓰고 있었거든요. 이 말은 멈추지 않고 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의 10여 년 가까이 독서회를 했습니다. 책이 저를 쓰는 사람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읽는 일이 좋으니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용한 아이가 내면의 소용돌이가 많은 사람으로 거듭난 것은 책과 글쓰기였습니다.

그림에세이!

때로 제가 지겨울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 많은 즐거움 중에 하필 책 읽고 글 쓰는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를 바꿔 볼 기회를 찾던 중에 만난 게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그림이었을까요?

어느 날, 도서관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뭔가 이게 다는 아니잖아?"라는 생각이 제 발목을 잡더군요. 차를 한쪽에 세워 놓고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사실 그림을 배우고 싶은데, 지금 가도 되나요?" 이렇게 그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슴 깊숙하게 묻어있던 작은 꿈 하나가 불현듯 노크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읽는 행위 쓰는 행위를 접고 이제 그림만 열심히 그려봐야지?" 라고 다짐했는데 무슨 일인지 저는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더군요. "그림과 글을 어떻게 접목하지?" 라는 고민을요. 그래서 시도한 것이 그림 에세이였습니다.

그림요? 저 잘 그리지 못합니다. 다만, 제 글과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여 4권의 그림 에세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거기 봄날 북콘서트장



작가와의 대화

결핍!

결핍이 많다고 여겼던 때가 있었는데요 ,아마 학창 시절과 스무 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 안에 인문학적 정서가 형성될 시기였던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냥저냥 살아도 되는데 책을 읽으면서 자의식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저를 자꾸 들여다보게 된 것이죠. 결핍은 결국 누군가 혹은 나와 다른 무엇과의 비교에서부터 싹이 트는 일인데, 대학교에 가지 못하게 된 순간부터 제 안에 결핍을 들여놓았습니다.

마흔이 넘어 기어이 대학을 나왔는데 사실 달라진 것은 크게 없었어요. 저는 저였으니까요.



작가의 가족들과


김정희 작가

온도!

삶에도 온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책 작업을 하고 있던 오월 어느 날이었어요. 윤희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이팝나무꽃이 핀 걸 보니 네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라고요. 이런저런 안부를 묻고 전화를 끊었는데, 뭔가 가슴에서 훈훈한 기운이 올라오더군요. 이게 무엇일지 곰곰 생각한 후에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윤희처럼 산 지 참 오래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꽃이 피면 꽃 보러 가자는 말을 참으로 아끼면서 살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기척을 하며 사는 게 사람살이구나 싶었고요. 윤희를 위해, 어쩌면 저 자신을 위해 책 한 페이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서죠. 이런 게 삶의 온도는 아닐까요. 저는 이 온도를 '다정한 온도', '외갓집 가는 길의 온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의 온도는 어떤 빛깔의 온도일까요.

작가의 글쓰기 사랑에 대한 집념이 끝없이 펼쳐졌다. 60여 명의 참가자들(좁아서 다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까지 80여 명)은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고, 토크는 계속되었다. 작가는 성장 과정 중 농사일을 하는 아버지의 영농일지를 읽으면서 이미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마당가에 피어난 꽃 몇 송이를 꽂아 놓고 딸아이들을 환하게 웃게 한 아버지의 삶의 낭만이 작가의 내면에 스며들어 글을 쓰게 했다.

김정희 작가는 "글을 쓰는 과정은 내면의 잔물결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삶의 조각들을 정리하는 시간 이었다"라며 "이 책을 읽는 이들이 저마다의 마음 속에 숨겨둔 고요하고 따뜻한 '거기, 봄날'을 찾아가길 바란다"라고 출간 소회를 전했다.

군산의 풍경과 닮은 잔잔함으로 또 한 번 아늑한 위로를 건네는 김정희 작가. 네 번째 글의 여정인 《거기, 봄날》은 오랫동안 독자들의 마음 곁에 따뜻한 햇살처럼 머물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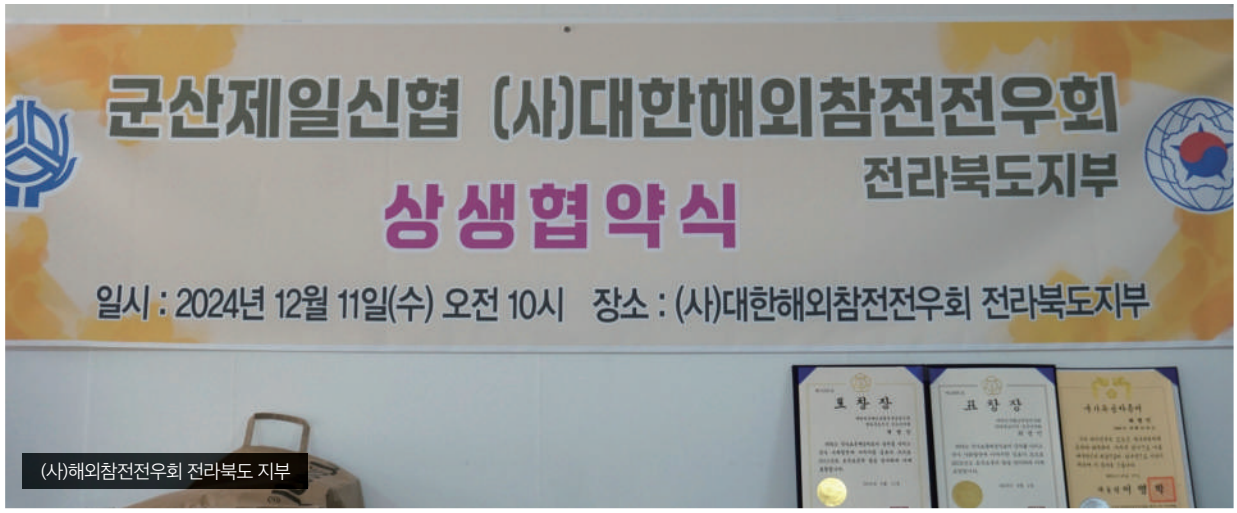
(사)대한해외참전전우회 전라북도지부 최병인 지부장 “해외참전자들,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 필요”

글 I 최승호
gsport1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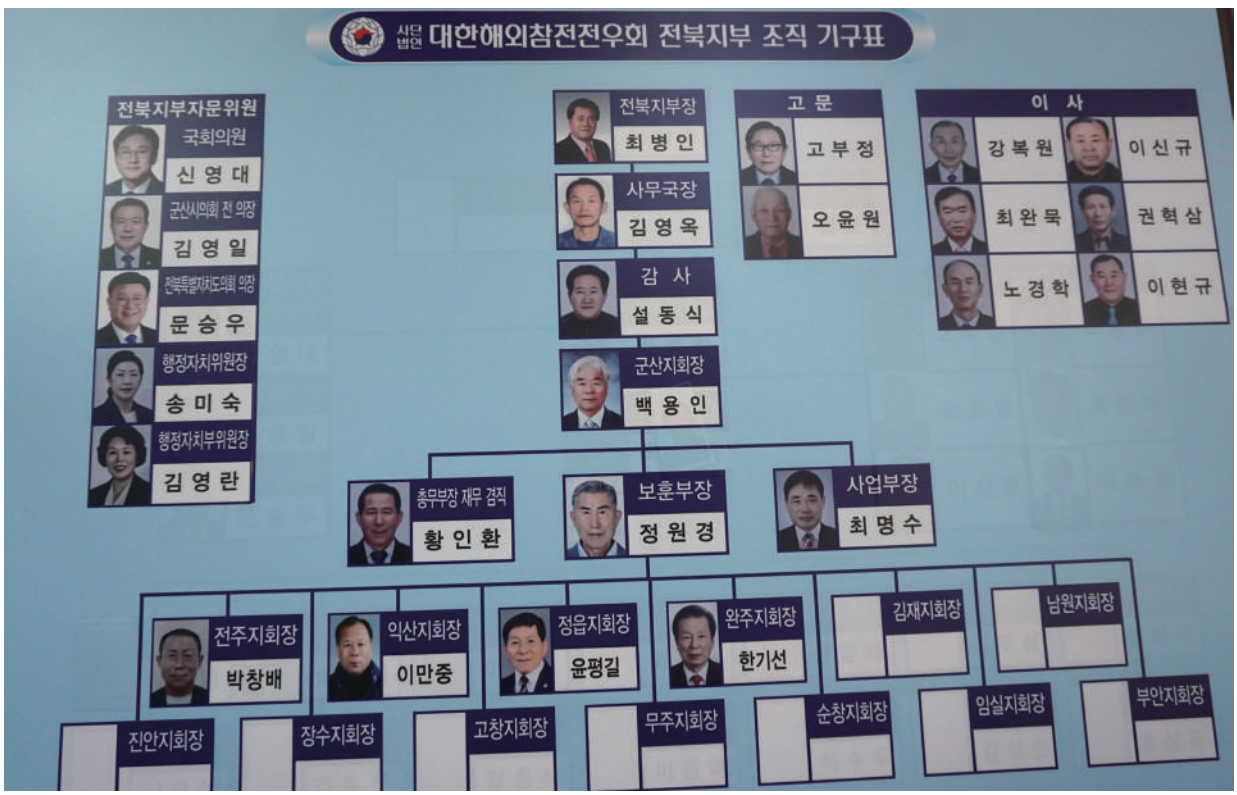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

국방부 등록 제16-4 ‘사단법인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전라북도지부’ 최병인 지부장.
대한민국에 있어 ‘베트남(월남)전쟁’은 군인들의 개인적인 참전에 그친 것이 아닌, 우리나라 현대사의 큰 역사적 변곡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전한 군인 각자마다 수많은 이유와 사연들이 있겠지만 월남전쟁은 단지 개인사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되는 역사적 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지 오래되지 않아 남의 나라에 파병된 군인들은 무엇보다 ‘나라를 위한 헌신’이 먼저였다. 먼저 최병인 지부장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사)해외참전전우회 전라북도 지부



‘부족한 처우와 소외’

최병인 지부장은 “먼저 ‘월남참전자회’, ‘월남참전유공자회’, ‘월남전고엽제피해자회’ 등 월남전쟁과 관련한 참전 군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단체명을 포함하여) 정부 차원에서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라고 말을 꺼냈다.

“그러나 참전자들을 위한 조직은 분열과 갈등을 겪고 다시 재정비 등을 반복하며 현재까지 이르렀다. 솔직히 말해 지나온 시간에 비해 오히려 더 개선되고 나아진 것이,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라고 먼저 소회했다.

최 지부장의 첫 발언을 통해, 결과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처우와 정서적 소외만이 팽배함이 진하게 배어 있음을 직감했다.

최 지부장은 “전에 ‘월남참전자회전북지부 군산지회’ 회장 등 오랫동안 참전자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해왔다. 초기에 실무를 맡기도 하고 회장이나 대표도 역임했다. 국가유공자 관련한 다른 단체장들도 비슷하겠지만 정말 참전자들의 권익증진과 처우 개선에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밝혔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회원들과 동료들의 처지와 입장을 공유하고 대변하며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봉사의 자세로 함께 어려운 길을 헤쳐온 산증인이라 할 수 있다.



전우회 사무실 앞에서



전우회 사무실에서 최병인 회장



전우회원들

'재정적 어려움 현실, 때론 사비 지출도'

"조직을 정비하고 자격 조건을 갖춘 참전자들을 찾아내고, 정식회원으로 등록하고, 회원들에게 정당하게 지원될 내용을 찾아보기 위해 여기저기 발로 뛰어다닌 기억이 새삼스럽다. 참 엊그제 같은데요..."
최 지부장은 잠깐 말을 잇지 못하고 주변 한 곳을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다.

"사무실 한 칸 변변히 마련하지 못하고, 겨우 마련한 사무실 운영비며 인건비, 그리고 임대료 등 재정적 압박과 어려움이 계속 이어졌다. 때론 제 사비로 급히 충당한 적도 적지 않아요. 어려웠던 걸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 그동안 같이 활동해 온 회원 동지들이 고맙지요.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라며 헛웃음을 지었다.

‘실태조사에 따른 합리적·적극적 지원 필요’

최 지부장은 “관련 단체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 회원 수 산정, 중복 가입 등으로 인해 예산 집행과 지원에 혼선이 있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는 권역별로나 지역별로도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다른 기준과 이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며 아쉬운 점을 설명했다.

이어 “공법단체와 비 공법단체, 각종 보훈단체 등 다양한 단체가 존재한다. 이로 인한 행정적 혼란과 예산 낭비 문제도 여러 번 지적되기도 했다.” 그리고 “실제 회원 수와 공식 집계 인원 간 차이, 단체 사이의 중복 가입자 문제, 고령화가 되면서 병원 장기 입원 환자, 급기야는 사망자로 확인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회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선행되고 이에 따른 지원 등 현실적 문제 등을 제대로 대처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부 갈등 및 법적 분쟁’

[보조금 집행, 단체 운영 방식, 회원 관리 등에서 내부 갈등과 고발, 재판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단체별로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 이를 둘러싼 회원 간 고소·고발에 따른 행정기관의 조사 및 지원 중단 사례도 있음.]

최 지부장은 이에 대해 “나 자신도 법적 분쟁에 휘말려 오랫동안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험이 있다. 다행히 법적 다툼은 잘 마무리되어 현재까지 단체를 유지하며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회원 간, 단체 간 다소 입장과 견해 차이가 있어도 서로의 경우와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대화하고 협의하여,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서로 불신을 가지고 반목과 갈등을 되풀이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보훈가족 모두가 하나라는 인식이 좀 아쉬웠던 시간이었던 같다.”며 지난 과정을 되돌아봤다.


전우회 회원들과 함께


해외참전 전우회 회원들과 함께



사진으로 보는 최병인 회장 활동사진



최병인회장이 받은 표창장

'송미숙 시의원의 관심과 지원에 고마움'

최병인 지부장은 송미숙 시의원과의 인연을 언급했다.

"지자체의 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기관이나 상급단체를 찾아가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일이 많다. 참 어렵고 난감한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상의하고 도움을 요청드리는 분이 송미숙 의원이다."

"오랜 인연으로 만나,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다(웃음). 늘 감사드린다. 마침 이번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해 많이 기쁘다. 시의회 차원에서 늘 앞장서서 걱정해주시고 발로 뛰면서 우리 단체가 안정되고 바로 설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한결같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며 거듭 고마운 마음을 밝혔다.



공로패



최병인 지부장 표창패



최병인 회장

'지역사회와 행정의 적극적 관심과 개입 필요'

"결국 해외참전전우회의 목적은 회원 동지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봉사활동, 회원들의 일자리 사업 등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앞서 얘기한 회원들의 고령화, 건강 문제, 이동의 불편함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원책은 부족한데 어려움은 더 많아지고 이중삼중으로 중복되고 있다. 회원들도 자연스레 조금씩 줄고 있어 단체 운영에도 애로점이 늘어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최병인 지부장은 "국가기관의 법적·행정적 제도개선을 통해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적 인식의 변화, 행정기관과 시의회, 언론 등과의 소통과 지원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제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생각해봐야 한다."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한 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일해 왔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어려운 고비에 닥칠 때마다 그동안 회원 동지들과 함께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봉사와 상생의 자세로 단체를 유지하고 이끌어 온 최병인 지부장과 대한해외참전전우회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한다.

사단법인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전라북도지부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228
063)466-1919/010-3900-3129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김보경 관장

글 I 오성렬
poi3275@naver.com

2007년 3월 개관, (사)군산YMCA에서 위탁 운영 중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이 어느덧 설립 19년째를 맞고 있다.
지상 3층에 약 1,000㎡ 면적 규모의 문화의집은 '지역 맞춤형 청소년 인재 육성'의 비전 아래 청소년 전지구적 시민성 &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창의'(청소년 육성 소양의 강화, 융합활동의 접목 & 창의인재 육성), '생태적 전환'(환경과 인간의 공존 추구 및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적 참여 확대), '디지털'(4차산업 등 디지털 해결 능력 향상), '협업'(유관기관 및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소통과 협력구조 형성)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청소년지도사 실습생과 함께

중점과제 및 경영 방침

설립 초기이던 2009년도 사무국장 직을 맡아 문화의집 실무를 총괄해 오다가 재작년 관장에 취임한 김보경 관장.
김 관장은 청소년 미래역량 활성화, 생태가치 추구 및 지속 가능화, 디지털 시민성 및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 활동 강화를 중점과제로 둔 가운데 '청소년 주인의식 활동을 전문가와 협업함으로써 꿈과 성장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 구축을 경영방침으로 정했다.



직원 단체 사진


연합 캠프

프로그램

*청소년 주도적 참여 및 미래 역량 활성화
-청소년운영위원회[즐겨찾기]
-청소년 문화기획단 및 청소년동아리연합회[로그인]
-청소년 정책로드
-청소년 동아리축제[MAMA FASTA]
-청소년 학교폭력예방교육
-청소년 포상제
-프렌즈 파티[문화교육프로그램]
-미래를 여는 청소년 나눔

*청소년 생태 가치 추구 및 지속 가능화
-청소년 기후 위기 환경교육
-학교 연계 업사이클링 및 캠페인 활동
-에코 아트데이
-인증 프로그램[인문요리사] / [PLAN-V]
-예비 청소년 지도사 활동 역량 강화
-가족캠프[푸른 가족의 하루]
-청소년 졸업캠프[마음의 스프링]

*시민성 및 디지털 역량 강화
-세월호 추모의 물결[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및 청소년 사회정서 함양 프로그램
-역사프로그램[지역사 활동 챌린지]
-옴니버스 영화
-디지털 디자이너 및 나도 인플루언서
-4차산업[미래와의 만남]

*지역사회 연계 & 청소년 활동 강화
-청소년 박람회 및 청소년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군산지역 사회복지 협력 / 학교 연계 활성화[강사 역량강화]
-우리동네 사랑의 밥퍼[라면데이]
-방과후 아카데미[희망터]
-우리동네 음식대장
-청소년 재능 성장 연계사업



2026 전국최우수상 수상


청소년영상제 대상 수상 후



인문해설봉사단 발대식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평가(2025/2026년도)

올해 6월 기준 약 35,000명의 청소년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 문화의집의 운영 실적과 자체 평가는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2025년도

-군산 제일신협 연계 어부바 경제교실(보건복지부장관상 및 신협이사장상 수상) : 방과후 아카데미 40명 7회기 프로그램 진행

-청소년 자원봉사동아리활동(성평등가족부장관상) : 4H군산기계공고 / 청소년자원봉사대회 15명 수상

-4차산업 활동 및 지속적 봉사활동(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김동규)

-군산시 청소년상 수상 : 지속적 활동으로 우수한 성과 인정(김승현)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교육지원사업 : 교육지원사업 선정(3천만원) / 청소년자원봉사대회 특별상 수상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97.1점(100점 기준)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정책 제안대회(4개 수상) : 최우수상 9명 / 우수상 9명 / 장려상 14명

2026년도

-전국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 '즐겨찾기'(성평등가족부장관상) :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문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 다양한 주도적 활동 인정(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배움터교육지원사업(삼성꿈장학재단) : 교육지원사업 선정 및 2천3백만원 지원 / 인문해설봉사단 구성 및 봉사활동

-청소년 어울림마당 : 인문학 및 지역사회 연계 체험부스 운영 / 청소년 동아리축제
2회 운영(960만원)

-청소년 동아리지원사업 : 4차산업(메이커), 공예체험(아뜰리에) 2개 운영(250만원)

-청소년성장지원단 : 정서, 학습, 진로 등 분과별 활동 / 지역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및
개인 성장 지원

-신협 어부바 멘토링사업 : 4년 연속 진행 / 청소년 경제교육, 문화체험 등 멘토 연계(33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전경

청소년복합문화센터로 기능 전환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운영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시설 리모델링 및 복합기능을 갖춘 문화공간으로의 변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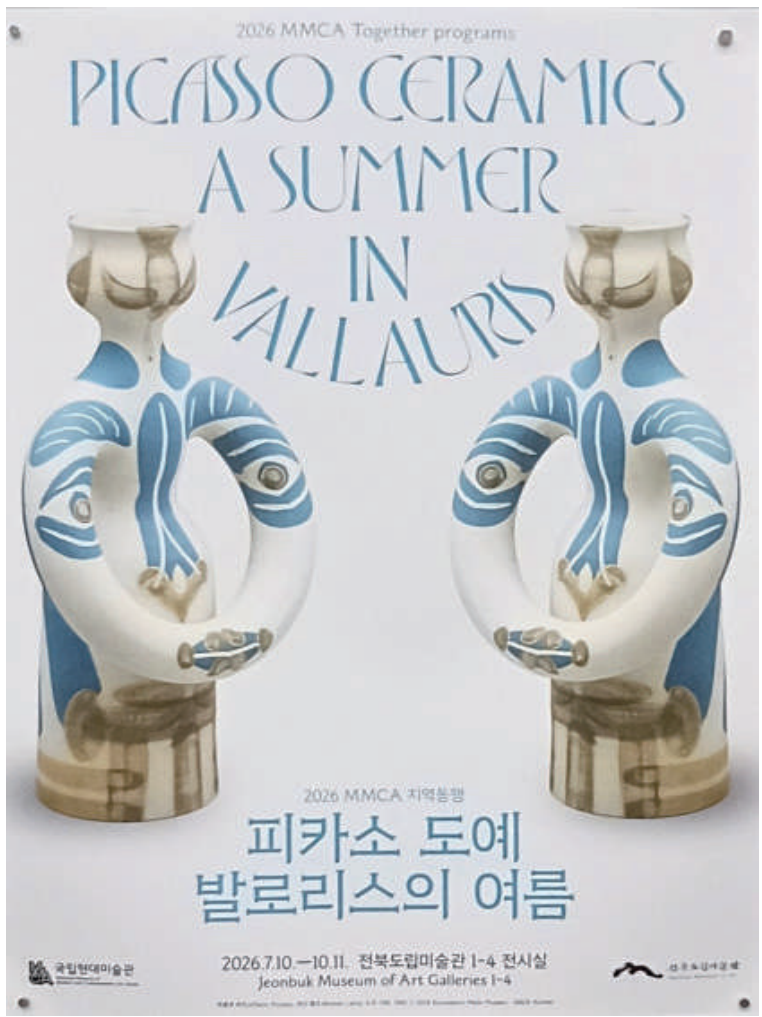
*새롭게 구성되는 시설 및 복합문화기능
-드론·로봇·VR 등 4차산업 체험공간
-스크린 기반 실내 스포츠 공간
-드로잉 및 재능 성장 체험 공간
-영화 및 음악 제작 시스템

김보경 관장은 운영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여 그들이 원하는 활동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라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손수 챙기고 있어 이번의 리모델링이 끝나면 청소년문화의집이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를 이룰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군산시 양안로133(조촌동)
T.063)451-7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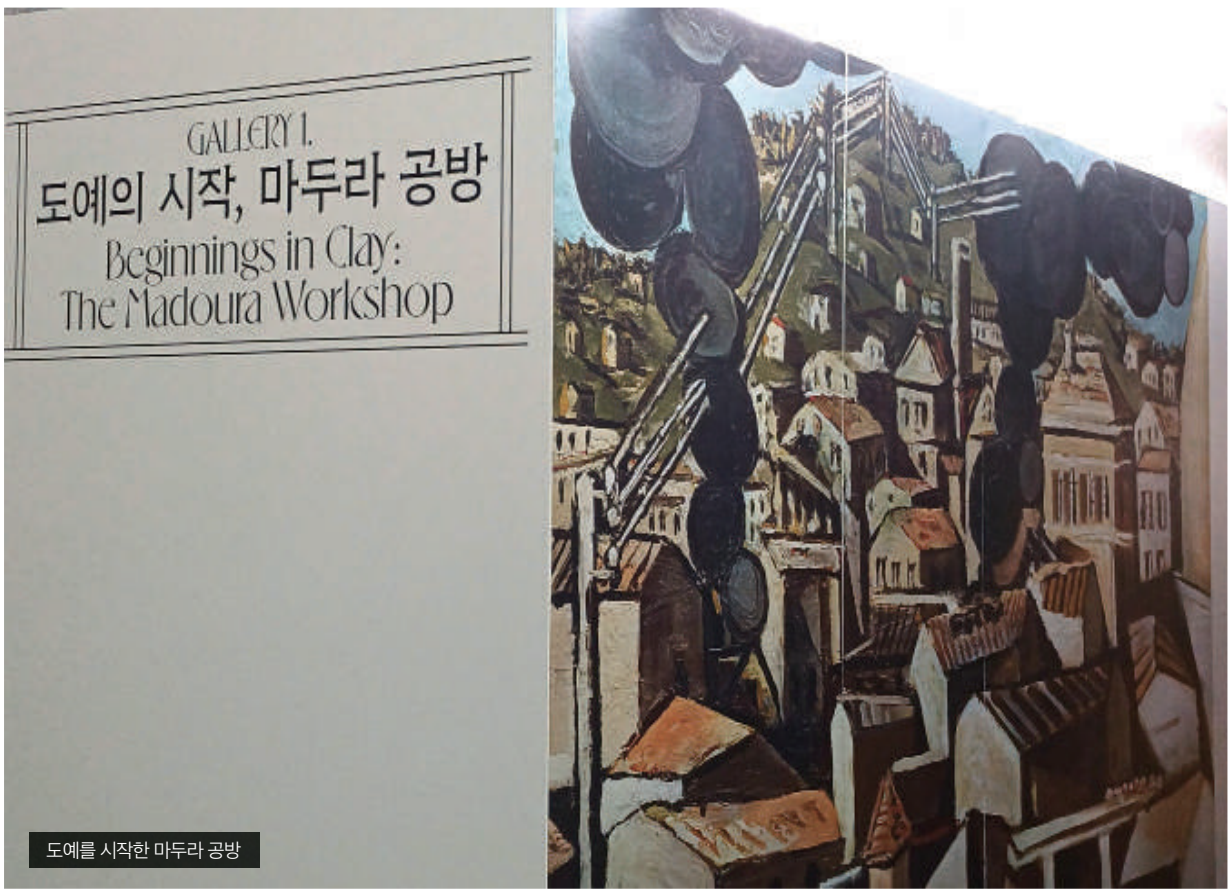
피카소의 창조 - 흙 위에서 다시 시작하다

글 I 정미란
jmr6114@hanmail.net



"영감은 존재한다. 다만 그것이 일할 때 나를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파블로 피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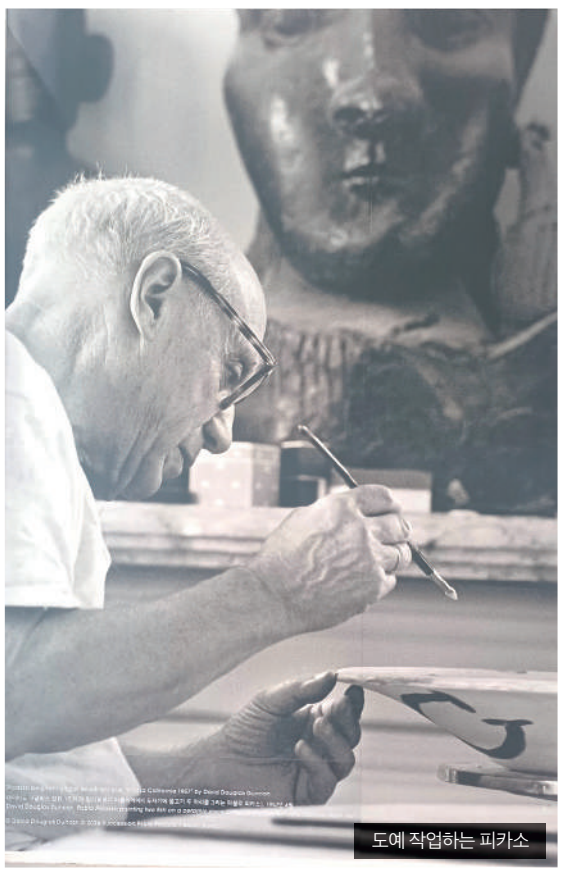
천재 화가로 불리는 피카소는 회화뿐 아니라
판화, 드로잉, 도예와 조각에 이르기까지 평생 5만 점이 넘는 작품을 남긴 다작의 예술가였다.
큐비즘으로 현대미술의 지형을 바꾼 그에게 도예는 또 하나의 새로운 예술 언어였다.
특히 발로리스에서 탄생한 도예작품은 회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발휘된 그의 창조성을 보여준다.
8월의 무더위가 한풀 꺾인 주말, 전북도립미술관 전시관은 관람객들로 붐볐다.
저물어가는 여름날, 피카소가 흙 위에 펼쳐놓은 자유로운 상상력과 마주하며 또 하나의 예술 세계를 만났다.



도예를 시작한 마두라 공방

도자기를 캔버스처럼 다룬 피카소

피카소가 본격적으로 도예를 시작한 것은 1946년, 65세 무렵이었다.
당시 연인이었던 프랑수아즈 질로와 프랑스 남부 발로리스의 마두라 공방을 찾은 것이 계기였다.
공방을 운영하던 조르주와 수잔 라미 부부와의 만남은 그의 예술세계에 새로운 전환점이었다. 피카소에게 흙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었다.
흙을 빚고 긁고 붓으로 그리고, 다양한 물체의 흔적을 찍어내며 평면의 회화에서 벗어나 입체와 표면, 형태와 질감을 실험했다.
도자기 자체를 하나의 캔버스처럼 다룬 것이다.
특히 그의 도예 작업에는 에디션(édition), 즉 하나의 원형을 바탕으로 일정 수량을 제작하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도예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될 수 있었다. 작품에는 제작자와 공방, 에디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남기도 한다.



도예 작업하는 피카소



도예 작품 앞에 선 피카소

하나의 대상 안 여러 시선과 이미지 존재

도자는 피카소에게 자유로운 조형 실험의 장이었다.
둥근 접시는 어느 순간 얼굴이 되고, 화병은 새나 동물의 형상으로 변한다.
시선을 옮기는 순간 여인의 얼굴이 올빼미로 보이고, 화병의 둘레를 따라가다 또 다른 얼굴과 마주한다.
하나의 대상 안에 여러 시선과 이미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에게 반복은 단순한 복제가 아니었다.
같은 모티프를 끊임없이 변주하며 형태가 어디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과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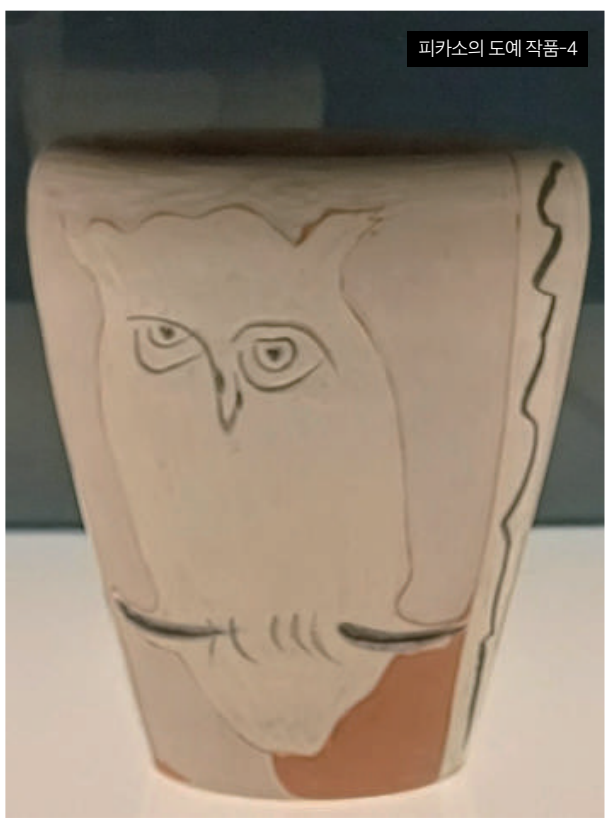
피카소의 도예 작품-1



피카소의 도예 작품-2



피카소의 도예 작품-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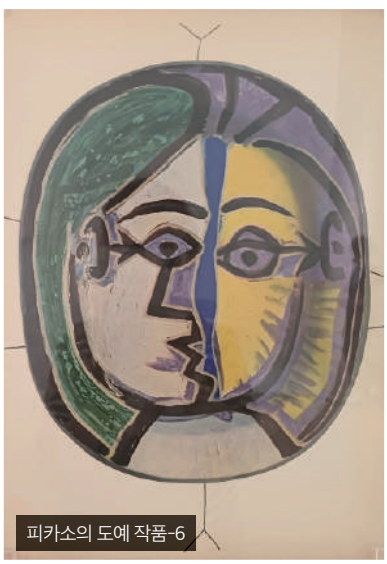
피카소의 도예 작품-4

흙은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

스페인에서 태어난 피카소에게 중요한 주제였던 투우 역시 도예 속에서 인간과 동물, 삶과 죽음의 긴장감을 담은 이미지로 다시 태어났다.
인간과 동물을 넘어선 투우의 장면들은 발로리스의 뜨거운 태양과 생동하는 열정으로 피카소 특유의 선과 형태로 다시 태어났다.
어쩌면 피카소에게 흙은 가장 자유로운 캔버스였는지도 모른다. 그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자신이 보고 상상한 세계로 다시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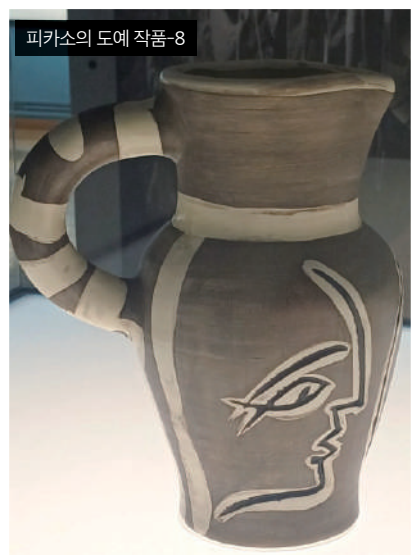
피카소의 도예 작품-5



피카소의 도예 작품-6



피카소의 도예 작품-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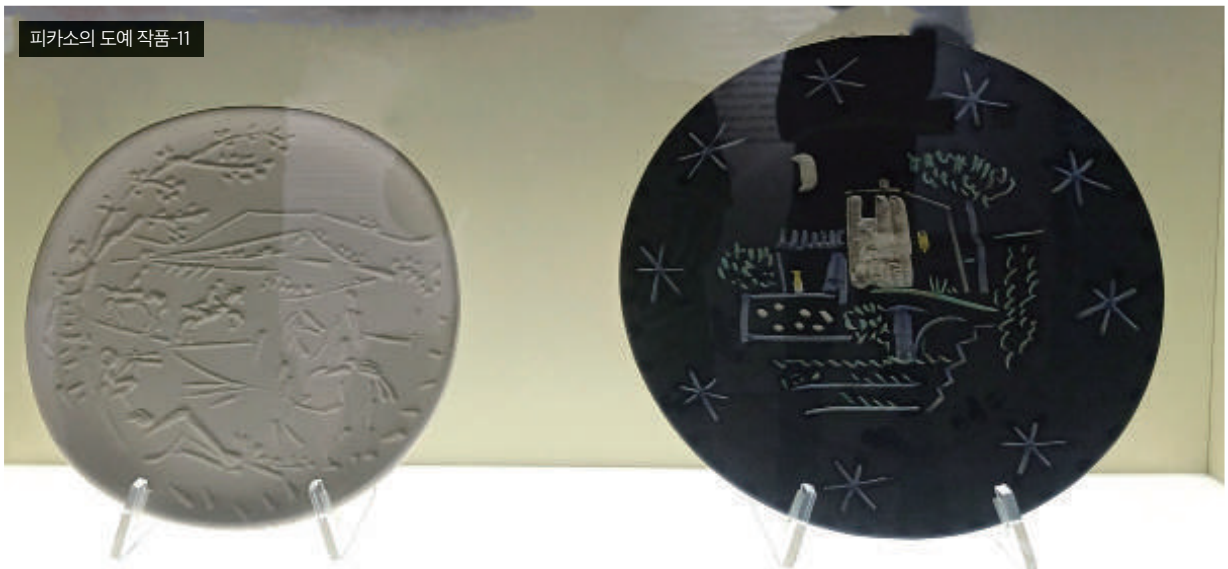
피카소의 도예 작품-8



피카소의 도예 작품-9



피카소의 도예 작품-10



피카소의 도예 작품-11





예술은 끊임없이 변형하고 다시 바라보는 과정

예술은 완성된 하나의 답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형하고 다시 바라보는 과정이었다.
65세에 시작한 피카소의 도예, 새로운 재료 앞에서 그는 다시 어린아이처럼 질문하고 실험하는 또 다른 예술가로 탄생했다.
캔버스에서 시작된 상상력은 흙으로 옮겨갔고, 흙은 불을 만나 다시 태어났다.
피카소에게 나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예술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문이었을까.
흙을 만지는 순간에도 그는 새로운 세계를 꿈꾸었고, 그 꿈은 다시 태어났다.

누구에게나 예술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피카소의 예술에는 끝이 없다'라는 말이 태어나지 않았을까.

유학(儒學) 600년의 숨결
옥구향교
조시탁 장의(掌議)

글 I 오성렬
poi3275@naver.com



향교 입구

옥구읍 상평리에 소재한 옥구향교, 최근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늘고 있다.
전국 제일의 배롱나무 명승지답게 경내에 만개한 배롱꽃은 향교의 고색 창연함과 멋스럽게 어우러져 이를 주제로 한 디카시(詩)공모전이 기획되어 있는 것도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요인으로 읽힌다.
필자가 향교를 찾았던 날, 군 장교 출신으로서 문화해설사이자 향교의 장의(掌議/성균관 유생들의 자치기구인 재회(齋會)의 임원)로 활동 중인 조시탁 씨가 마침 일일 자원봉사자로 나와 있었다.
그로부터 향교와 관련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향교전경



향교 입구의 비석들

옥구향교는 공자를 위시한 여러 성현에게 제를 올리고 지방민의 교육을 위해 국가가 세운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으로 오늘날의 공립학교라 할 수 있다.
조선 태종 3년인 1403년에 처음 세워진 후 인조 24년인 1646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으며, 건물 배치는 앞쪽에 명륜당(明倫堂), 뒤쪽에 대성전(大成典)을 비롯하여 옥산서원, 문창서원, 단군성묘, 현충사, 세종대왕 숭모비, 자천대, 외삼문과 내삼문, 선정비, 전사재, 동재, 교직사 등의 건물들이 조성되어 있다.



대성정 앞에서



명륜당 앞, 조시탁 장의와 김기향 군산역사 사랑회 부회장


자천대

군산시 향토문화유산 제3호로서 1929년 지역 유림들이 국권을 잃은 상황에서도 충·효·예를 숭상하고 장려하기 위해 건립했으며 신라시대의 성현 문창후 최치원을 비롯하여 옥구지역의 선현을 모시고 있다.

문창서원(文昌書院)

최치원의 시호인 문창을 따 만들어진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양식 건물이다. 최치원이 옥구현에서 관리로 근무한 적이 있다는 구전이 전한다.

단군성묘(檀君聖廟)

1976년 지역의 유림들이 뜻을 모아 홍익인간의 이념을 펼친 단군성조를 모신 사당이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보수 과정을 거쳤으며 1998년 전면 개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음력 3월15일 기신일은 어천대제, 10월3일 개천철엔 단군성묘 개천대제를 봉행한다.

대성전(大成殿)

전라북도 문화재 제 96호인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건물로 석축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민흘림 원기둥을 세운 후 이익공 형식으로 공포를 짜고 겹처마 맞배지붕을 올렸다. 내부에는 공자를 비롯한 그 제자와 설총, 안향 등 성현 18명의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향교의 대표인 전교(典校)와 수석장의 등 인근 유림들이 모여 분향제를 올린다.

명륜당(明倫堂)

외삼문을 들어서면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된 명륜당이 서 있다. 향교의 두 가지 기능인 교육과 제사 중에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명륜당은 공자의 정신이 윤리를 밝힌다는 의미를 가졌고, 현판의 글씨는 주자학의 창시자인 주희 선생의 필체를 모사하였다.

현충사(顯忠祠)

문창후 최치원, 이우당 조태채, 한포재 이건명, 면암 최익현, 돈헌 임병찬 등 5명을 모시고 있는 정면 1칸의 맞배지붕 형식의 건물이다.

세종대왕 숭모비(世宗大王 崇慕碑)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효행, 농사, 과학기술, 음악 등 263권에 달하는 서적을 편찬하는 등 민족문화를 창달 발전시킨 세종대왕을 기리기 위해 1973년 8월에 비각을 건립하였다.

자천대(紫泉臺)

전라북도 문화재 116호인 자천대는 군산의 유일한 2층 누각 정자로서 정면 3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 형태를 띤 조선 후기 누각 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 건물이다. 자천대는 본래 옥구현 서쪽 하제 포구 인근 바위산에 세워져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34년 비행장 확장 공사로 존폐 위기에 처했는데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자천대의 2층 누정을 당시 유림들과 옥구군 최학수 군수가 나서서 일본군의 군장비를 동원, 옥구향교로 이전하였다. 자천대는 '소년 시절의 최치원이 신라의 무관으로 내초도에 부임한 부친을 따라와 같이 살았는데 이 정자에서 글 읽는 소리가 당나라까지 들려 사신이 건너와 그를 데리고 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외삼문(外三門)과 내삼문(內三門)

향교의 입구에 해당하는 외삼문과 대성전의 출입구인 내삼문은 중앙의 큰 문과 양 옆 두 개의 작은 문으로 이루어져 있어 삼문으로 부른다. 중앙의 문은 어문(御門), 혹은 신문(神門)이라 하여 제례가 있을 때만 열 수 있고 신과 왕만이 이용할 수 있는 문이기에 평민의 이용을 금한다. 따라서 일반인은 양 옆의 문을 이용해야 하며 삼문에 들어갈 때는 동쪽(오른쪽)문, 나올 때는 서쪽(왼쪽)문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해가 뜨는 동쪽을 남성과 동일하게 우선시했던 조상들의 관념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선정비(善政碑)

향교 입구에 줄지어 늘어선 23기의 비석들은 옥구현에 부임하여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수령들의 선정을 기념하여 세운 비석들이 대부분이다. 비석 머리에는 용과 구름, 태양, 당초문, 귀면상, 학 등 조상들이 신성시했던 문양과 잡귀의 근접을 막는 문양이 양각되어 있다.

전사재(典祀齋)

전사는 조선말 장례원에 딸리어 제사의 일을 맡아보던 칙임관, 또는 주임관 벼슬을 일컬으며 전사재는 향교나 서원에서 석전대제나 석채제를 주관하는 전사관이 제례의 일을 관리하고 제관들과 협의하는 곳으로 제관복이나 제기 등을 보관 관리한다.

동재(東齋)

조선시대 교육기관에 설치한 기숙사로 강당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마주 보는 건물을 짓고 각각 동재, 서재로 불렀는데 동재는 주로 양반 자제가, 서재는 평민 자제가 기숙했다.

교직사(校直舍)

교직사, 또는 고직사를 불리는 향교의 관리인이 거처하는 곳으로 제사의 물품을 준비하고 강학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곳이다. 향교에 따라서는 교직사를 ㄹ단순한 관리사로만 이용하기보다 충·효·예절교실 운영 등 지역민 교육의 장으로 폭넓게 활용하기도 한다.


한시 공부 시간


비문 설명 중인 조시탁 장의


구경중인 관광객

약 60여명의 유림이 등록된 옥구향교는 초등 교장 퇴직 후 시인으로 활동 중인 김옥중 선생이 전교(典校/향교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전임 전교인 노장용 선생이 논어 강론과 한시 독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림회(儒道會) 공명규 회장을 비롯하여 조시탁 장의까지 모두가 열성적으로 향교 운영에 본분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약 20~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매월 초하루, 보름(삭·망) 분향제에는 논어 강론과 한시 독해 시간을 가짐으로써 회원들의 호응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향교 측으로부터 운영에 아쉬워하는 부분도 들을 수 있었다.

6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교육적 건물로서 매일 70~80명 이상, 특히 7월 중순 이후 배롱나무꽃이 피기 시작하여 약 100일 동안의 절정 기간에는 하루 백여 명 이상이 찾는 등 관광객의 발길이 꾸준히 늘고 있는 공간임에도 문화해설사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지방에서 향교에 문화해설사를 두고 있는 반면 군산에만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지역의 향토문화유산을 소홀히 여기는 당국의 무관심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청년 상인 전현일의 무인 소품숍 도전기

군산 작가들의 수공예 작품 판매하는 '뷰 뮤지엄'

글 I 채명룡
ml7614@naver.com



소품샵 내부 모습

출입문 옆의 카드 인식기에 나의 개인 카드를 대고 출입문을 열자 그야말로 진풍경이 펼쳐졌다.

10평 남짓한 매장에는 '아기자기', '생기발랄', '올망졸망' 등등의 수식어를 붙이기에 딱 좋은 소품들이 '나 여　어~~~' 하고 손짓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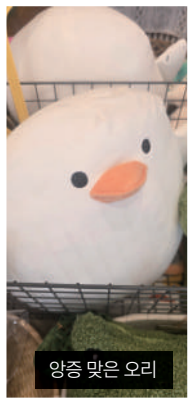
무인점포에 걸맞게 셀프 계산기가 자리 잡고 있으며, '착한 가게' 인증서가 눈길을 붙잡았다.

가게 중앙의 소품 진열대를 중심으로 사각의 통로가 만들어졌으며, 벽면에는 작가들이 만들어 공급한다는 제품들로 가득 찼다.

'매일 매일 작은 행복들로 채워가세요', '온 우주가 당신의 행복을 바라고 있어요', '짧은 여행이라도 추억은 영원하길' 등등 팻말이 예쁘다.

한 번에 돌아보기는 어렵고, 세심하게 돌아보자니 또한 살짝 어설프다. 그런데도 자꾸 눈길이 가는 '아이러니'한 점포 이미지랄까.


귀여운 강아지 인형들


앙증 맞은 오리


돼지 인형 소품들


모자도 있군요



무인 점포를 아껴주세요

외진 골목에 생기를 불어넣은 '무인 소품숍'

중앙로 이성당 옆 구영7길은 옛 영화를 간직한 골목이다.
말하자면 1997년 군산시청이 이전하기 전까지의 화려했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장소로 기억된다.

이성당을 찾는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골목인데, 몇년 전까지 오래된 주점이 폐업 이후 방치되어 있었다. 사람들의 온기가 빠져나간 건물은 건강을 잃어가는 병자의 모습이었다.

전현일 대표는 91년생 토박이 군산 사람이다.
그는 관광객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골목의 건물이 왜 이렇게 폐허가 되었을까 고개를 갸웃하게 되었다.

"군산의 명소 주변이 이런 상태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고민했죠."
청년 상인의 이런 고민이 만든 새로운 형태의 무인숍이 바로 '뷰 뮤지엄'이다.
구경하는 박물관이라는 뜻이다.

군산의 수공예 작가들 작품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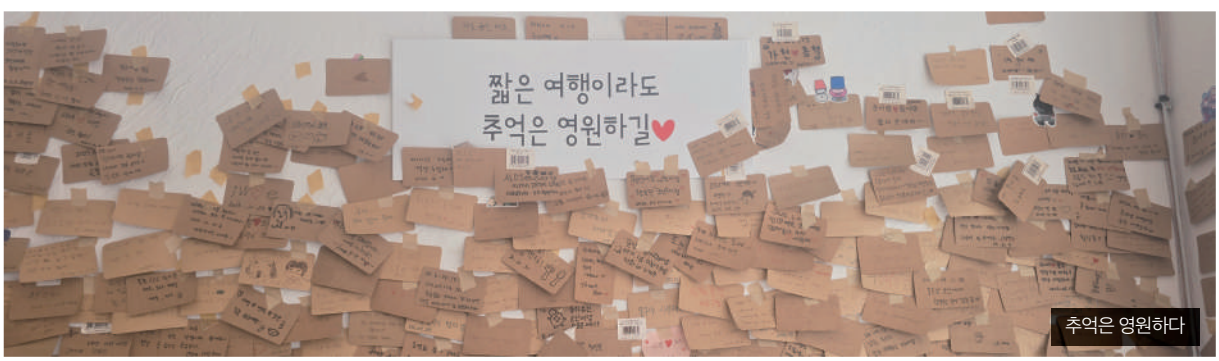
방치된 골목길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 말은 쉽지만 간단한 일은 아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고민했다. 물론 성공보다 실패의 확률이 높다는 건 말할 것도 없었다.
"군산에서 활동하며 수공예품을 만드는 작가들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요. 그분들과 연대해서 군산을 기념하는 물건을 만들고, 군산다움을 가진 상품들을 판매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죠."
불 꺼진 골목에서 청년 상인이 사업에 도전하는, 말하자면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벌어진 셈이다.
지난 2024년 처음 무인숍을 운영하려고 할 때만 해도 진열된 상품이라고 해봤자 보잘것없었다.
그런데 방문객들이 이어지면서 가게도 변신을 거듭했다.
"시작 당시에는 몇 가지 품목이었는데, 현재 200~300종류의 수공예품, 진열된 상품만 해도 수천 가지가 현장에서 판매되고 있거든요."
지역, 즉 로컬 문화를 바라보는 전 대표의 생각은 '매력'이었다. 기성 상품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함이랄까.
"군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공예품 작가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작품을 상품화할 생각을 갖게 됐어요. 로컬 문화에 대한 생각이 사업의 영역으로 확대된 셈이었죠."



간만에 색다른 경험이죠



계산은 여기서 해주세용~~~



추억은 영원하다


물건을 찾는 관광객들



무인 소품샵 '뷰 뮤지엄 ' 야간에도 오픈 - 3



요런 인형들도 있네요


소품샵을 찾는 청년들


백팩도 다양하군요


열쇠고리도 많아요


액자도 판 매 중



이 '곰돌이를 살까'



작지만 큰 행복을 찾으셨나요?



이런 소품도 있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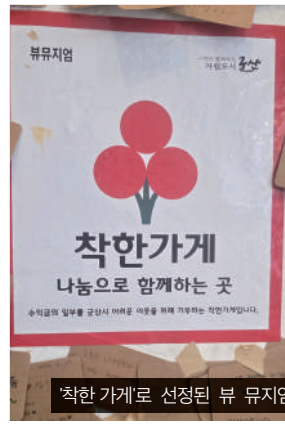


우와..팔찌, 도장케이스



이걸 선물하면 "돈 복"도 함께 굴러들어갈까


열쇠고리도 많아요



'착한 가게'로 선정된 뷰 뮤지엄



행복한 쇼핑이 되시길

군산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뷰 뮤지엄'

'뷰 뮤지엄'은 이제 2년 차이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가게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했다.
무인 소품숍을 돌아보는 약 30분의 짧은 시간이었으나 적지 않은 손님들이 들어왔다. 얼핏 보니 관광객들 같았다. 어떤 물건이 마음에 드냐고 물었다.
"작고 앙증맞은 것들이 많잖아요? 가격도 착하고요… 천천히 골라 봐야죠."
전 대표는 판매 현황을 보니 군산의 이미지에 맞는 제품들이 조금 더 많이 팔리는 것 같다고 했다.
"여행 와서 갖고 싶은 엽서, 마그넷 등등의 소품이 주목받는데, 아무래도 '8월의 크리스마스', '초원사진관'과 관련된 엽서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무더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 커플, 여행객들이 아름아름 찾아오는 곳.
작지만 매력 만점인 이 가게에서 군산다움을 만끽할 수가 있다니 참 다행이다.


'뷰 뮤지엄' 전현일 대표

청년 상인의 도전 정신, '참, 멋지다'

근대역사의 중심이자 중앙동, 신창동, 월명동, 영화동의 중심에 자리한 구영7길 한쪽에 자리 잡은 이 무인 소품숍에 자꾸 눈길이 가는 건 왜일까?
"저는 로컬만이 가진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수공예품들의 경우 기존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매력적인 제품들이 많거든요."
전 대표는 군산에 이어 천안에 2호점을 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 쪽에 3호점을 낼 계획이다.
"점포가 늘어나면 지역 작가들 제품을 판매할 곳이 늘어나니까 작가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군산도 알리게 되니 가슴 뿌듯한 일이잖아요."
청년 상인의 도전 정신이 '참, 멋지다'. 이건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뷰 뮤지엄'의 승승장구를 빈다. / 채명룡



무인샵 경고문

작가들이 만든 소품 전문점 '뷰 뮤지엄"
군산시 구영 7길 77.

활시위 끝에 실린 호국충절…
- 군산 진남정, 최호 장군의 기상을 잇다. -

글 I 박세원
hamp38@hanmail.net


안수근 회장과 궁사들의 휴식 시간

넓은 들을 지나 발산 마을로 가는 길목, 배롱나무꽃이 양옆 가로수로 끝도 없이 전개되어 있다. 백일 핀다는 꽃이 초여름 붉은빛을 활짝 머금었다.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한적하면서도 기품이 넘치는 반월산 자락 아래에는 특별한 장소가 자리하고 있다.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최호(崔湖, 1536~1597) 장군을 모신 사당 충의사(충청남도 수군절도사 최호 장군 유지)와 그 기운을 마주 보고 들어서 있는 국궁장 '진남정(鎭南亭)'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단순한 스포츠 시설과 사적지의 경계를 넘어, 진남정과 최호 장군 사당의 인접성은 국궁(弓道)이라는 민족 고유의 무예가 지닌 본질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문화적 상징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충절 최호 장군은 선조 9년(1576년) 무과 중시에서 장원 급제한 실력파 무장으로, 선조의 피란길을 호위하고 함경남도 병마절도사로 활약한 명장이다. 1596년 이몽학의 난을 신속히 평정하여 청난공신에 올랐던 그는,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충청도 수군절도사로서 칠천량 해전에 출전했다.

원균 등과 함께 연합함대를 이끌고 왜군에 맞섰던 최호 장군은 집중포화 속에서도 끝까지 배 위를 지키며 장렬히 전사했다. 61세의 연로한 나이에도 불꽃 같은 투혼을 발휘했던 그의 영정과 위패는 현재 군산 개정면 충의사에 모셔져 있다. 충의사를 찾았을 때는 이른 아침 유난히 푸른 잔디가 배롱나무 붉은 꽃과 어우러져 사당을 감싸고 있었다.


사대에 선 궁사들



활시위를 당긴 순간


과 녁

최호 장군의 무풍(武風)이 숨 쉬는 곳, 활터 '진남정' 최호 장군의 사당 옆에 터를 잡은 진남정은 남쪽의 오랑캐와 침략을 누르고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는 의미의 이름처럼, 호국과 방어의 기상을 온전히 품고 있다.

예로부터 국궁은 단지 과녁을 맞히는 기술에 그치지 않고, 마음을 바로잡는 '정심정기(正心正己)'의 덕목을 상징해 왔다. 진남정에 서서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는 사두(射頭)와 사객들은 자연스럽게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최호 장군의 충의를 마주하게 된다.

장군이 평생을 품었던 나라 사랑의 마음과 무인으로서의 결기는, 오늘날 진남정 궁도인들이 당기는 활시위 하나하나에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매일 아침 진남정에 울려 퍼지는 팽팽한 활시위 소리는 마치 400여 년 전 정유재란의 현장에서 나라를 지키려 외치던 장군의 절규이자 영혼의 울림처럼 다가온다.

역사와 스포츠가 어우러진 '호국 문화 교육의 장' 지자체와 지역 문화 전문가들은 진남정과 최호 장군 사당의 연계성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히 활을 쏘는 동호회 적 공간을 넘어, 청소년과 시민들이 조선 무신의 호국 정신을 직접 체감하고 배우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진남정을 찾았을 때는 마침 '안수근 회장님'이 맞아주었다. 앉자마자 옛 진남정의 이주 과정과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기까지 과정을 술술 풀어주었다. 활쏘기야말로 취미로 즐기기에 안성맞춤 운동이라고 덧붙인다.

10여 년 전 시작한 국궁은 삶의 활력소가 되고 운동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회원들과 돈독한 정을 나누는 장소라고 소개한다.

"활을 쏠 때 바람을 계산하고 호흡을 가다듬는 과정은 자신과의 싸움이자 마음을 비우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정신 운동입니다."


앞쪽에서 바라 본 진남정


최호 장군 상단 입구



진남정 입구


궁사들을 기다리는 화살

안 회장은 지금의 진남정이 자리 잡게 된 역사적 기반과 과정을 설명하는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진남정의 위치는 개정면 발산리 최호 장군 유적지(전라북도 기념물 제32호)동편에 부지를 마련하고 전통 목조건축물을 축조한 뒤 남북축으로 사(射)거리 150m 이상 조성했다.

오늘의 진남정이 있기까지는 군산시와 최호 장군 후손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강조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진남정은 과녁이 3관인데, 최소 4관을 갖춰야 전국 규모의 대회를 치를 수 있다.

4관 이상의 과녁이 있음으로서, 대규모 참기 인원을 소화할 수 있고, 제한된 시간 내에 대회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군산시에서 유일한 국궁장(고창 4개소)의 규모가 도민체전과 전국 대회를 수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궁사들의 마음을 전한다.


최호 장군의 사당 충의사


최호 장군의 사당


안수근 진남정 회장님

사대에 선 '박규현 여자 궁사'가 활시위를 당기자, 잠시 침묵을 깨고 공기를 가르며 손에서 떠난 화살이 과녁에 꽂혔다.

그 모습이 어찌나 위풍당당하고 멋지게 비춰져 어떻게 해서 활 쏘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몇 마디 질문을 던졌다.

어느 날 문득 활터를 지나다 마주한 국궁장과 궁사들의 활 쏘는 장면을 보게 된 박 궁사. 그게 너무 멋있어서 바로 국궁장을 찾아왔다는 그녀는 국궁을 시작한 지 7년 정도 됐다고 한다.

운동의 매력으로는 단순히 어깨 힘으로 활을 당겨서 쏘는 것이 아니라며 소신을 덧붙였다.

"이게 그냥 팔 힘으로만 쭉 당겨서 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여자들에게 꼭 맞는 전신 운동이에요. 저기 과녁까지 145m거든요. 과녁에 화살을 맞히기 위해서는 전신에 힘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전신 운동이 돼요. 전신 근력운동으로는 이만한 운동이 없어요."

"국궁이 한 번 접하면 매력이 아주 많아요. 정신 건강에도 너무 좋고 이제 저 같은 중년 여성들한테는 근력을 키울 수 있고, 저는 건강도 굉장히 좋아져 우울할 시간이 없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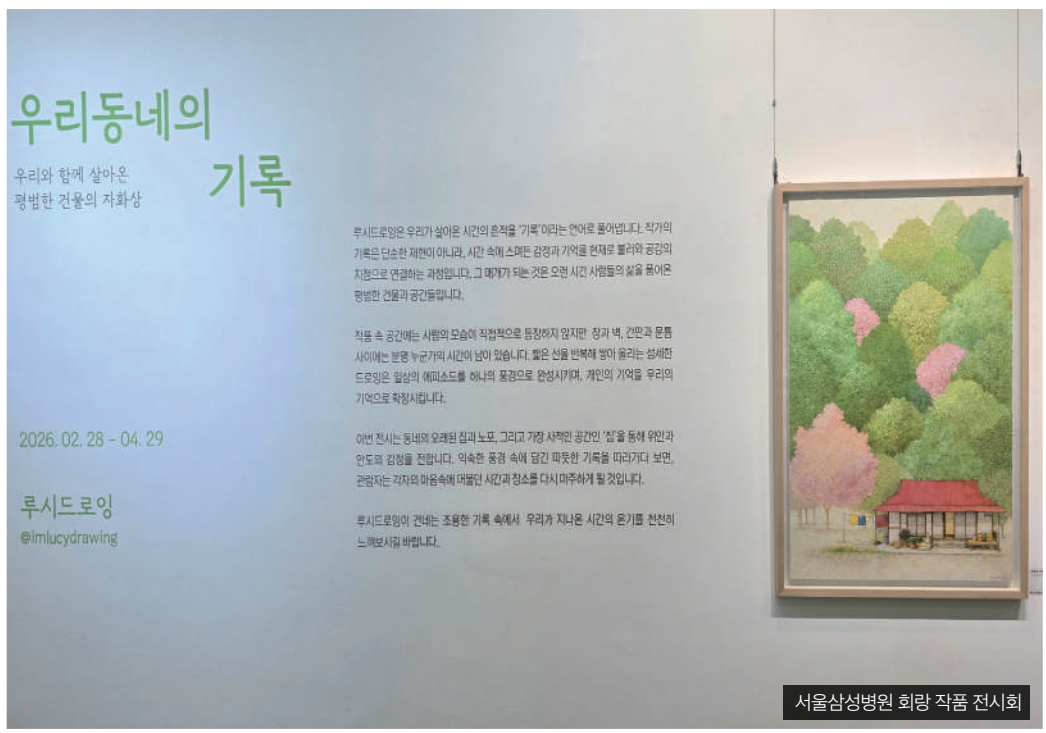
궁사들의 활쏘기에 대한 자부심과 국궁장에 대한 애착을 드러낼 때마다 군산 진남정에서도 전북도민 체전이나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가 치러지기를 기대해 본다.

365일 궁터에 아침 운동으로 시작하여 퇴근 후 저녁 9시까지 와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게 개방되어 있는 곳 진남정. 과녁을 향한 궁사들의 뒷모습에서 늠름한 기개와 절제된 내면의 당당함이 느껴졌다.

아득하고, 아련했던 추억의 소환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루시드로잉' 작품 전시를 보고

글 I 발행인 채명룡
ML7614@naver.com



서울삼성병원 회랑 작품 전시회

뭔가 가슴 한쪽을 아련하게 하거나 아득했던 추억이 이런 모습이었을까.
지난 2월 강남 일원동의 삼성서울병원 회랑에서의 일이다.
일반 미술관이나 전문 화랑의 전람회가 아니라 바쁜 환자들과 가족들 너머로 보이는 '루시드로잉'의 작품 전시는 색다른 경험이었다.
작품들은 모두 어릴 때 바라보았던 우리 동네의 표정들이 대부분이었다.
마치 '어이, 오랜만이야~~~' 하고 손을 내미는 듯했다.
가슴속에 남아 있던 내 삶 뒤안, 그 흔적을 다시 만난 느낌.
그때 보았던 전시 작품들의 잔상은 오래도록 내 기억 속에 머물렀다.



루시드로잉 전시 안내


바쁜 병원 방문객들이 눈길을 끄는 전시회


본관~암병동 이어지는 회랑에서의 전시로 환자와 가족들 위로


작품-우리 동네 골목길 작은 가게


작품-바닷가 작은 마을의 오후



작품-덩실덩실

볼 사람은 보고, 귀가 있는 사람을 들으리라

필자는 오래전부터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지금까지 정기 점검 등으로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다.
병을 얻고 내면으로 갈무리하는 데 익숙해질 25년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6개월 주기로 그 당시의 병을 추적 관찰 중이다.

삼성서울병원 본관에서 암 병동까지 길게 이어진 통로(회랑)가 있다. 환자들이 끊임없이 오고 가는, 말하자면 나와 비슷한 시골 촌놈에겐 낯선 풍경이다.
그렇지 않아도 병원 곳곳에 미술 작품들을 걸어두어 까막눈과 같았던 나의 눈을 호사스럽게 만들어주기도 했던 터였다.

이 병원에 가면 복도, 화장실 등등 은근하면서도 눈길 가는 곳마다 삼성이 수장한 작품들을 전시해 놓아 감상 비슷한 기회가 제공되었다.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볼 사람이 보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들을 것'이리라.

익숙했던 기억의 소환

그날, 병동을 건너가는 회랑에 예전 필자가 자랐던 구암동과 아동리 마을 한쪽에서 보았던 기억의 장소들이 발치를 들고 서 있었다.
정미소, 동네 어귀의 쌀가게, 복남이네 자전거 수리점, 신영동에 나가면 보였던 소아과병원 등등…… 마치 5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해질 그림들이다.
작품 설명에 판화라고 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일상에서 사용하는 컬러펜으로 여러 번 겹쳐 선을 그어가면서 공간과 여백을 만들어내고 일상과 풍경, 그리고 추억들을 소환하고 있었다.
작가가 건물과 풍경,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 '추억 만들기'의 또 다른 방편이 아니었을까.
작품들을 보면서 사진처럼 정교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거기에 상상력이라는 양념을 조금 친 느낌.
일상과 건물에 남아 있는 시간, 그것들이 겹쳐 지나온 세월, 그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과의 영적 교류 등등…….
교감이란 여러 말이 필요치 않다.
작가 또한 이렇게 사람과 작품 사이의 관계 형성을 바랐던 게 아니었을까?



"저에게 기록은
단순한 재현이 아닌 그때의
감정과 기억을 다시 불러
현재의 우리가 공감하게
하는 일이에요."

루시드로잉 작가

루시드로잉은 펜의 반복적인 선과 섬세한 터치로 시간의 흔적과 기억이 스며든 공간을 기록합니다. 평범하고 익숙한 동네의 건물과 집을 주요 소재로 삼아, 사람의 부재 속에 남겨진 삶의 온기와 감정을 화면에 담아냅니다. 창과 벽, 간판과 문틈에 쌓인 시간의 결은 개인의 기억을 넘어 우리 모두의 공감으로 확장됩니다. 일상의 풍경을 조용한 기록으로 풀어내며, 지나온 시간에 대한 위안과 안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루시드로잉 작가: 이예일 lucydrawing@naver.com | 인스타그램 @imlucydrawing
작품 구입 문의: 클램프갤러리 010-8761-9807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졸업

개인전

2025 Embrace of the Forest (클램프갤러리)
TIME LOG (인사갤러리)
2024 우리의 기록 (아트리에 갤러리)
우리의 기록 (갤러리일호)
2023 우리의 기록 (클램프갤러리)
우리동네의 기록 (아트리에갤러리 광주)
2022 우리동네의 기록 (아트리에갤러리 판교)

소장

산업은행 아카이브 1918' 외 3점 - KDB산업은행 본점 소장 (2024~2025)

기타 프로젝트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외교부, 보건복지부,
삼성화재, KDB 산업은행, 화성문화재단, 국립항공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합천군청, 성북구청, 대구 수성구청 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MBC개표방송 이미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도록 일러스트 수록
화랑미술제, 서울아트쇼, 대구국제아트쇼 외 다수

작가-루시드로잉 소개 글



작품-가을 숲이 우거진 마당에서



작품-서울 계동 우리동네 소아과



작품-역전쌀상회


작품-돈가스 먹는 날


작품-성북동 친구집,아침일상



작품-시간이 덧대어진



작품-우리골목 패션리더



작품-우리 동네 사진관


작품-우리동네 오랜 수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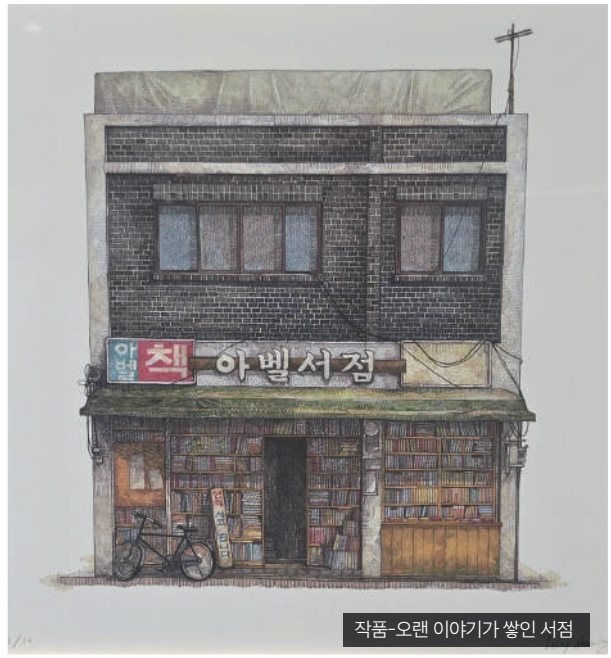

작품-우리동네 목공수



작품-우리동네 비디오 가게



작품-오랜 국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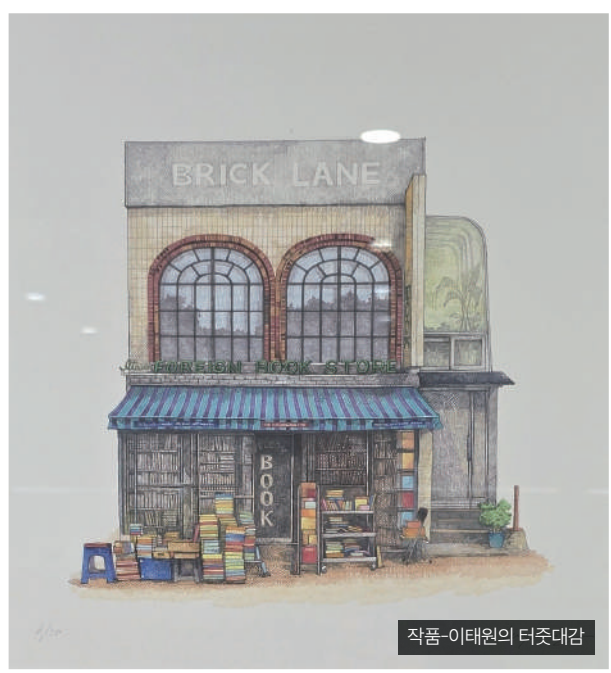
작품-오랜 이야기가 쌓인 서점


작품-이웃 사촌, 보통날


작품-이웃 사촌, 어느날 오후



작품-오후 수다가 가득한 가게



작품-이태원의 터줏대감


작품-장독대 가득한 노란 숲


작품-초록 숲 시골집


작품-작은 성수


작품-초록 정미소


작품-초가 지붕 자전거 수리점

군산의 근대 이미지와 어우러지는 루시드로잉의 작품 세계

루시드로잉의 작품세계와 상당히 잘 맞는 도시가 바로 군산이라고 본다. 아련하고 아득한 추억의 장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근대건축물로 남겨진 조선은행 군산지점(근대건축관), 옛 군산세관,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신흥동 일본식 가옥, 동국사, 해망동·월명동·신흥동의 일본식 주택과 상점(적산가옥), 장미동의 항만시설 등이 그렇다.

2026년 초에 보여준 삼성서울병원 전시에서도 어디선가 보았던 동네의 건물과 집을 소재로 하고 있었으며, 시간과 기억이 스며든 공간을 보여줬다.

군산은 일제강점기 쌀 수탈과 항구도시의 역사가 담긴 곳이다.
작가의 펜을 사용한 겹쳐 그리기로 일제강점기의 아픈 상처를 담아낼 수 있을까.

거기에 더해, 루시드로잉과 같은 작가의 추억을 소환하는 작품들을 군산에서 전시할 수는 없는 것일까.

군산의 아픈 상처, 루시드로잉으로 치유하자

루시드로잉의 작품을 바라보는 내내 군산은 아픈 상처가 많다는 걸, 드러내 놓아야 치유가 된다는 걸 생각했다.

사라지기 전에 간직해야 할 것들을 루시드로잉처럼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억을 소환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후회하지 않기 위한 과정이다.

오늘의 시점에서 기억하는 모든 것에 상상력을 입혀주는 일. 군산다움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도전해 보면 어떨까.

루시드로잉의 작품으로 군산이 새롭게 조명되고, 아련했던 추억을 소환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더불어 그 작가를 초대하거나, 전람회를 열어 줄 누군가가 나오기를 바란다.

글/발행인 채명룡

바로크미술 대표화가 - 4.요하네스 페르메이르
일상의 찰나를 영원한 빛으로 붙잡아 둔 화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 1632년 네덜란드 델프트에서 태어나 1675년에 사망한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로, 일상적인 실내 풍경과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섬세하고 조용하게 표현하였다.
그 생애와 작업 과정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적다. 작품 또한 진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약 35점 정도뿐이다. 그래서 미술사에서는 그의 작품 속에 남겨진 수수께끼와 같은 의미 때문에 '델프트의 스핑크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는 '델프트'에서 생애 대부분을 보냈다. 당시 네덜란드는 상업과 시민문화가 발달하면서 귀족이나 종교 중심의 미술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생활과 가정적인 장면을 다룬 작품이 인기를 얻은 시기였다.
바로크 회화의 대표주자 페르메이르의 작품은 빛과 색채의 표현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오늘날에는 렘브란트와 함께 네덜란드 미술의 거장으로 평가받지만, 생전에는 델프트 지역을 넘어 널리 알려진 화가가 아니였다. 사후에는 거의 잊혀졌다가 19세기 후반 프랑스 미술평론가 '테오필 토레'의 적극적인 재평가로 재조명되며 부상 하였다.

그 작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을 이용하여 인물과 사물의 형태를 부드럽게 드러내며, 밝음과 어둠의 미묘한 차이를 통해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여기에서 그의 작품을 소개 하겠다. 작품을 보는 순간 그 이름에서 오는 이질감을 버리게 될 것이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 녀'

아~! 이 그림! 이라는 탄성이 나왔을 것이다. 그렇다. 그의 대표작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이다. 푸른색과 노란색의 강렬한 대비, 인물의 신비로운 표정과 빛나는 진주 귀걸이가 특징인 이 작품은 '북유럽의 모나리자'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작품이다.



'우유를 따르는 하녀'

또 한번의 탄성을 부를 작품 '우유를 따르는 하녀'이다. 평범한 하녀가 우유를 따르는 순간을 포착하였다. 단순한 일상 장면이지만 빛과 색, 공간의 구성으로 인해 평범한 노동의 순간이 아름답고 특별한 장면으로 만들었다.
그 시절 다른 한쪽에서는 권력자들의 힘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페르메이르는 세상의 귀를 닫고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숨을 쉬었다.
페르메이르는 실내 공간을 매우 정교하게 구성하였다. 방 안의 벽, 바닥, 창문, 가구와 소품 등을 세밀하게 배치하여 안정적이고 깊이 있는 공간감을 만들었다. 이러한 그의 빛과 공간 그리고 인물의 표정의 상관 관계는 삶의 긴장으로부터 긴 숨을 내쉬게 하는 듯, 관람자 역시 그의 그림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배수정
서양화 화가
군산대 서양화 강의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도 삶은 흐른다

문학과 사람과 함께, 마음속 꽃길을 걷는 시간. 삶은 은유이고, 사람은 꽃입니다.

<오늘의 시>

어느 틈에

김선순

금이 간 사발에
먼저 고이는 것은
햇살이었다

깨진 창으로는
바람보다
꽃향기가 먼저 들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빛은
어느새
그 틈을 익히고 있었다

그 틈으로
하루가 머물고
한 사람이 기대고

이름 모를 꽃이 피었다

가을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마음에도 때때로 계절이 바뀝니다. 한동안 아프기만 했던 일이 어느 날 조금 다르게 보이고,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치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금이 간 것을 보면 먼저 '상처'를 봅니다. 하지만 상처보다 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봅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실패했을 때, 관계가 멀어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상처에 오래 머뭅니다. "왜 나는 이럴까" 하며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치유는 상처를 없애는 데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는 나를 그대로 바라보고, 그 틈으로 들어오는 작은 빛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한 모습입니다. 시치료에서는 시 속의 이미지와 자신의 경험을 연결하며 마음을 바라봅니다. '금이 간 사발'이 내 모습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깨진 창'이 내가 지나온 삶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이 간 틈으로 하루가 머물고, 한 사람이 기대고, 이름 모를 꽃이 핍니다. 상처가 있었기에 더 깊어진 마음, 아파보았기에 누군가의 아픔을 알아보는 마음. 어쩌면 잘 돌보아진 상처는 타인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9월, 추석을 앞두고 우리는 그리운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괜찮아. 아직 아파도 괜찮아. 그 틈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상처가 다 아문 뒤에야 꽃이 피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어느 틈에, 상처 난 그 자리에서 꽃은 이미 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에게 묻습니다
Q 지금 내 마음에 난 '틈' 하나는 무엇인가요?
Q 그 틈으로 무엇이 들어오기를 바라나요?



김선순 시인
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시치료 • 독서치료전문가
봄봄문학상담연구소 대표

계수나무 잎을 받아오는 계절

우체국에 갔다. 안부 편지 몇 통을 보냈다. 올해는 지인들에게 편지로 안부 인사를 전하고 싶었으나,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아 겨우 몇 통을 썼다. 다 쓰지 못한 이유 중에 '바빴다'는 것은 맨 마지막 이유다. 쓸 사람은 많았으나, 또 다른 이유로 쓸 사람이 없었다. 요즘 같은 때 편지를 전하는 일을 상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사람, 한가한가 보네.' '뭘 거추장스럽게 편지람.' '나도 편지로 답해야 하는 거야?'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나름 잊고 싶지 않은데 연락이 뜸해져 편지로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것마저 상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 망설여진다.

아무튼 이러든 저러든 흉으로 보지 않을 사람, 내가 그저 믿는 몇 사람에게 편지를 썼다. 긴 이야기보다는 시 한 편을 적어 넣기도 하고, 책갈피에 넣어두었던 계수나무 잎이며 자작나무 잎에 응원의 말을 적어 끼워 넣기도 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계수나무를 찾아가 잎을 받아온다. 마치 솜사탕 가게에 가 솜사탕을 사 오는 느낌이다. 계수나무 잎에서 나는 달큰한 향은 자꾸 코를 흠흠거리게 만든다. 책 사이에 끼워 놓으면 한동안 책에서도 솜사탕 향이 난다.

우체국에 갔더니 배송료도 많이 올랐고, 우표 대신 스티커를 붙이기에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요즘은 우표를 쓰지 않는단다. 편지를 쓰는 사람도 없으니 기념 우표나 조금 발행할 뿐, 우표도 없다는 대답이었다. 그렇다면 우표에 담긴 그 많은 이야기들도 사라지겠구나 싶었다.

우표가 사라지는 일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계수나무 잎을 따서 책갈피에 넣어 말리고 솜사탕 향이 사라지기 전에 편지 속에 넣어 보내는 일은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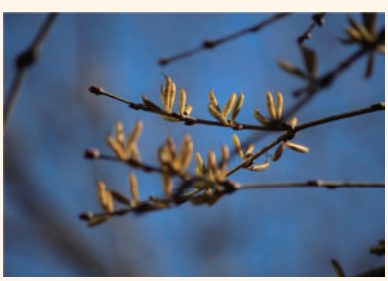
이 글을 읽는 독자 누구라도 혹 솜사탕 향이 나는 계수나무 잎이 든 편지를 받고 싶으시다면 메일로 주소를 알려주시길. 그러면 기꺼운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싶다. 올해가 가기 전에.



계수나무



솜사탕 향이 나는 계수나무 잎



계수나무 열매



신솔원
시인/ 전북작가회의, 한국동시문학회 회원
문 밖에서 만나는 나무와 풀, 곤충을 사진에 담고 이야기한다